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실제적 자료의 듣기 교육이
EFL 학습자의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濟州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金 材 炫

2011年 12月

실제적 자료의 듣기 교육이

EFL 학습자의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指導教授 邊 明 燮

金 材 炫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12月

金材炫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1年 12月

The Educational Effects of Authentic Listening
Materials
on EFL Learners'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y

Jaehyu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Myung-Sup By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cember 2011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대상 및 기간.....	3
3. 연구의 가설.....	3
II. 이론적 배경.....	4
1. 듣기.....	4
1) 듣기의 정의.....	4
2) 듣기의 중요성.....	5
3) 듣기의 저해 요인.....	6
2. 분절음소와 초분절음소.....	7
1) 분절음소와 초분절음소의 정의.....	7
2) 분절음소와 초분절음소의 기능.....	8
3. 실제적 자료.....	9
1) 실제적 자료의 정의.....	9
2) 선행연구.....	9

III. 한국인 학습자의 취약점과 수정방안.....	13
1. 분절음소에서의 취약점.....	13
1) 자음.....	13
2) 모음.....	23
2. 초분절음소에서의 취약점.....	27
1) 단어 강세.....	27
2) 문장 강세.....	29
3) 억양.....	29
4) 연음.....	31
5) 축약.....	32
IV.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34
1. 미국의 소리 기원.....	34
2. 미국의 소리 특징.....	34
3. 미국의 소리 구성.....	36
4. 미국의 소리 자료.....	38
V. 연구 결과 분석.....	42
1. 연구 절차.....	42
2. 연구 결과 분석.....	44

VI.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61
ABSTRACT.....	65
부 록.....	67

표 목차

<표 1> /l/와 /r/의 최소 대립쌍.....	22
<표 2> /i/와 /ɪ/의 최소 대립쌍.....	24
<표 3> /ɛ/와 /æ/의 최소 대립쌍.....	25
<표 4> 복합명사와 명사구 강제 비교.....	28
<표 5> 구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축약 현상.....	32
<표 6> 미국의 소리 수업 자료.....	38
<표 7> 연구 절차.....	42
<표 8> 수업 지도안.....	43

그림 목차

<그림 1> 실제적 자료의 장르별 특징	11
<그림 2> 영어와 한국어의 자음.....	13
<그림 3> /t/와 /d/의 조음위치	14
<그림 4> /n/ 소리 앞에 오는 비개방음 /t/.....	15
<그림 5> /b/, /p/와 /v/, /f/의 조음위치	17
<그림 6> /e/, /ð/와 /s/, /z/의 조음위치	19
<그림 7> /l/와 /r/의 조음위치	20
<그림 8> Vowel space in relation to the mouth.....	23
<그림 9> Position of vowel chart in oral cavity.....	23
<그림 10> /i/와 /ɪ/의 조음위치	24
<그림 11> /ɛ/와 /æ/의 조음위치	25
<그림 12> /ə/의 조음위치	26
<그림 13> 억양 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의 예.....	31
<그림 14> 미국의 소리 자료 이해도	39
<그림 15> 미국의 소리 자료 내용 흥미도.....	40
<그림 16> 미국의 소리 빈칸 채우기 과제 채점도.....	41
<그림 17> 듣기 저해 요인 교육 유무.....	44
<그림 18> 학습자 입장에서의 듣기 저해 요인	45

<그림 19> 학습자가 선호하는 교재	46
<그림 20> 듣기 학습에 대한 흥미도	48
<그림 21> 듣기에 대한 자신감	49
<그림 22> 듣기 저해 요인 교육의 필요 유무	50
<그림 23> 듣기 교재에 대한 흥미도	51
<그림 24> 발화까지의 연관성	52
<그림 25> 미국의 소리 자료의 장점	53
<그림 26> 미국의 소리 자료를 이용한 학습시 어려운 점	54
<그림 27> 실험 수업 참여 학생들의 사전·사후 평가의 점수 비교	5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로 인한 빈번한 국제교류에 따라 각국의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수단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영어이다. 최근 전 세계 495만여 개의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웹문서의 86.55%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정보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영어는 사회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언어라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김형수 & 정인철, 2003).

이러한 영어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한국의 교육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0년부터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이 추가로 주 1시간씩 늘어났으며, 영어회화 전문 강사 제도가 도입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역 듣기평가를 대체하기 위한 국가 영어 능력 평가시험을 개발 중이다. 이것은 문법, 독해위주의 수업 보다는 듣기와 말하기, 즉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강화할 수 있는 영어 학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어과에서 내놓은 학습목표에도 잘 반영되어 나타나있다. 영어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또한, 외국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여 한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첫째, 평생교육으로의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둘째,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셋째,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균형 잡힌 태도와 자세를 기른다(교과부, 2011: 7).

위와 같은 목표를 두고 있기는 하나 한국인 학습자들은 아직도 시험용 교재 또는 교과목을 위해 만들어진 정제된 자료를 이용한 문법과 독해위주의 수업, 시험 대비를 위한 수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어휘력과 문법에 대

한 지식은 높으나 실질적인 의사소통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오경은 & Rick, 2005). 또한 시험문화에 익숙해진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학습의 목표를 의사소통이 아닌 시험 성적 향상에 두는 큰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교과부에서 목표로 제시하였듯이 언어 학습의 최종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향상이다. 의사소통을 위한 네 가지 언어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 우선시되어야 하는 기능은 듣기이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듣기 환경에 먼저 노출되어 의사소통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에서도 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듣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차경환(2005)의 논문 조사 내역을 통해 알 수 있다. 차경환(2005)은 창간 후 40년 동안(1995~2004년) 영어교육(English Teaching)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들 중 듣기 또는 청취이해에 해당되는 논문을 분석하였는데 총 논문 수 1,239편 중 듣기에 해당하는 논문은 전체 논문 수의 4.43%에 해당하는 55편에 그쳤으나 1995년부터 논문이 발표되는 개수가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그만큼 영어 듣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중요시 되고 있는 듣기는 구어영어에서 입력(input)에 해당하며 출력(output)에 해당하는 말하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입력이 올바른 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입력 시 사용되어지는 학습 자료의 주제 또한 중요하다. 박가연(2008)도 듣기 이해능력과 대화주제의 부족이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의 차단과 발화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화 주제의 부족 현상을 없애고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며 후에 말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자료로써 학습자들을 위해 정제되어 만들어진 교육용 교재가 아닌 실제적 자료(authentic materials)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실제적 자료와 듣기 저해 요인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였을 경우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학습자의 듣기 이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제주도 제주시내 소재의 N 어학원¹⁾에서 학습중인 중학생 1, 2학년 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학생들은 N 어학원 입학 당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의 성적이 비슷하였다. 실험 수업은 2011년 11월 3주간 10회(각 55분) 진행하였다. 그리고 사전·사후 평가 시험과 설문지를 통하여 실험 수업 참여 학생들의 영어 듣기에 대한 성적 및 태도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3. 연구의 가설

본 논문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화자의 취약한 분절음, 초분절음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 이해능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정제된 학습 자료가 아닌 실제적 자료를 학습 교재로 이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것이다.

셋째, 실제적 자료에서 나타나는 소음과 영어권, 비영어권 화자의 영어에 학습자들을 노출시켜 세계인의 영어를 간접 경험 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실제적 자료와 듣기 저해 요인 교육을 병행 할 경우 학습자들의 듣기 이해능력은 향상되어 성적 향상²⁾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1) N 어학원은 한국내 48개의 캠퍼스(2011년 11월)로 이루어져 있다. 학원 입학시에 치른 시험은 N 어학원 본사 교재 개발부에서 만든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사전·사후 평가 시험에 의해 측정된 결과를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듣기

1) 듣기의 정의

듣기란 수동적인 기술이 아닌 창조적인 기술로서 단순히 화자(speaker)의 발화 내용의 소리를 식별하는 능력이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소리의 식별에 근거하여 들은 말의 단어를 배열, 화자의 억양 높낮이를 파악하고 청자(listener)의 배경 지식을 더하여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재구성하여 이해하며 기억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Rivers, 1978: 63; Rivers, 1981: 160; Richards, 1983). Littlewood(1981: 66)도 듣기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에 새로 받아들인 정보를 관련시키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듣기 능력이란 소리의 식별 능력과 청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지식이 더해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듣기 능력에 대해 김진희(2003)는 청자가 소리를 구별하고 어휘와 문법구조를 이해하며 강세와 억양을 해석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합 유지하여 발화의 맥락 내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고, 정은주(2006)는 중심어와 상황에 중점을 두어, 화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자가 적극적으로 추측하고 판단하여 창출해내는 능력이라 하였으며, 권지혜(2007)는 화자의 발화를 기초로 하여 음운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인 언어적 지식과 청자의 배경지식이나 상황맥락과 같은 비언어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능동적, 통합적, 창조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Widdowson(1978)은 이러한 듣기를 ‘hearing’과 ‘listening’으로 구별하였다. ‘hearing’은 청자가 귀를 통하여 들어온 음을 명확히 듣고 의미와 상관없이 음운이나 문법 구조를 인지하는 것인 반면, ‘listening’은 의사 전달 과정에서 문장이 갖고 있는 기능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상황적 문맥에 적합하도록 의미를 이끌어 내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듣기’란 ‘hearing’이 아닌 ‘listening’에 해당한다.

2) 듣기의 중요성

듣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기능으로서 Rivers(1978: 62)는 의사소통 활동 중 듣기는 전체의 45%, 말하기는 30%, 읽기는 16%, 쓰기는 9%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은 언어를 배울 때 듣기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듣기 환경에 먼저 노출되어 의사소통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에서도 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이기석(1997: 337-338)은 두 자녀가 아홉 살과 여섯 살일 때 미국에서 1년 동안의 생활 중 약 6개월 동안의 듣기 과정 이후 말하기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로써 구어 영어 중 듣기가 말하기보다 우선시되어짐을 증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듣기 능력은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Asher, Kusudo, & Torre, 1974).

- (a) A : Is this Wemberly?
B : No, it's Thursday.
C : Oh, I am too; let's have a drink.
- (b) A : Where did you go on your honeymoon?
B : I went to Guam for my honeymoon.
A : Yeah, Gangnam is a quite good place to go.

위의 대화 (a)³⁾는 기차가 Wemberly 역으로 다가섰을 때 세 사람의 대화이며 (b)⁴⁾는 저자가 원어민(native speaker)과 나눈 실제 대화이다. (a)의 세 사람과 (b)의 두 사람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로 간에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서로가 화자가 하는 말 중 특정 단어의 음소를 잘못 구별, 화자의 발화에 대한 청자의 잘못된 판단 또는 청자의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의사소통이란 화자의 발화 내용을 청자가 듣고 이해하는 것인데 위의 대화 (a), (b)는 서로 듣고 말하고는 있으나 듣기의 과정 중 첫

3) Brown(2007: 299)의 예시 인용.

4) (b)의 대화는 저자가 미국 오리건(Oregon) 출신의 원어민과 실제 나눈 대화 내용이다.

단계인 소리의 식별이 잘못 이루어져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함으로써 서로간의 의사소통이라는 언어학습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언어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언어가 제 기능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존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듣고 이해하는 부분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듣기의 저해 요인

Boyle(1984)은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청자의 요인(listener factors), 화자의 요인(speaker factors) 그리고 듣기 자료와 매체의 요인(factors in the material and medium)으로 나누었다. 청자의 요인은 목표어(target language)에 대한 듣기 경험, 일반적인 배경 지식, 교육적인 수준, 기억력과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지적 수준과 심리적 요인들, 화자의 요인은 화자의 언어 능력, 발음, 음 변화(sandhi-variation), 목소리와 화자의 권위와 성격, 발화 속도, 듣기 자료와 매체의 요인은 듣기 자료에 나타난 음운론적인 요소들과 어휘 및 통사론에 관계되는 것, 내용의 어려운 정도, 환경적 요인, 몸짓(gestures), 시각적 요인들이라 정의하였다.

Rubin(1994: 199-211)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듣기 자료의 특성(text characteristics), 대화자의 특성(interlocutor characteristics), 듣기 과업의 특성(task characteristics), 청자의 특성(listener characteristics)과 청해 과정의 특성(process characteristics)을 들었다. 듣기 자료의 특성으로서는 발화 속도(speech rate), 머뭇거림과 휴지(hesitation and pause phenomena), 지각 수준(level of perception), 음 변화, 강세와 리듬 유형의 지각(stress and rhythmic patterning perception),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차이(L1, L2 differences), 통사적 변형(syntactic modification), 잉여성(redundancy), 형태론적인 복잡성(morphological complexity), 어순(word order)등을 들고 있다. 대화자의 특성으로는 성(gender)이 듣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으며, 듣기 과업의 특성으로는 듣기 과업의 형태를 말하고 있다. 청자의 특성으로는 목표어의 유창성 정도, 기억력, 주의력, 정의적 요인, 나이,

성, 배경지식 등이 듣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듣기 과정의 특성으로는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그리고 두 과정의 상호 작용(parallel processing) 등이 듣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Brown(2007)은 음성 언어의 특성이 듣기 과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구어의 여덟 가지 특성인 무리 짓기(clustering), 잉여성(redundancy), 축약형(reduced forms), 수행변인(performance variables), 구어체(colloquial language), 발화속도(rate of delivery), 강세, 리듬, 억양(stress, rhythm and intonation)을 듣기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안수용(1995)은 외국어 학습 시 듣기의 저해 원인을 정의적 요소(affective factors)⁵⁾, 음 변화 현상, 통사적 복잡성(syntactic complexity), 의미적 비 친근성(semantic familiarity) 그리고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를 들었으며 이러한 저해 요소들을 우선 제거해야 듣기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학자들이 주장하는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청자의 특성과 화자가 전하는 듣기 자료의 특성이 듣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듣기 자료의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 중 한국인 화자의 취약한 부분을 분절음소(segmental phoneme), 초분절음소(suprasegmental phoneme)에 기초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듣기 저해 요인에 대한 교육으로 그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2. 분절음소와 초분절음소

1) 분절음소와 초분절음소의 정의

분절음소란 뜻의 차이를 가져오는 최소의 소리단위인 자음(consonant)과 모음(vowel)을 일컫는 것이며, 초분절음소란 2개 이상의 음절이 어울려 낱말(word)

5) 감정적 상태, 동기 등을 말함.

을 이루거나 낱말이 모여서 구(phrase)나 절(clause)을 만들면, 강세(stress), 억양(intonation), 휴지(pause)등의 뜻의 차이를 가져오는 이 요소들을 일컫는 말이다.

2) 분절음소와 초분절음소의 기능

(a) rip/rip/ - rib/rib/ (b) ban/bæn/ - van/væn/ (c) pin/pin/ - fin/fin/

(a)의 /p/-/b/, (b)의 /b/-/v/, (c)의 /p/-/f/는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차이를 가져오는 분절음소이다. 이러한 분절음소를 잘못 듣거나 발음했을 경우에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듣기 이해의 오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안화현(2007)은 학습자들이 소리를 구별해서 듣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발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발음하는 연습을 통해서 그 소리를 감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였으며, 김동규(2007)는 기본적인 음운현상에 대한 숙지훈련이 이루어진 집단이 일반적인 영어듣기 수업이 이루어졌던 집단에 비해 듣기 성적이 유의미하게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d) She is his sister.

(e) She is his sister.

(d), (e)는 같은 문장이지만 초분절음소 중 하나인 강세의 차이로 인해 의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d)는 “그녀는 그의 여동생입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지만 (e)는 “그녀가 그의 여동생입니까?”라고 묻는 의문문이며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다’ 또는 ‘의외의 사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음절박자언어(syllable-timed language)인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은 영어와 같은 강세박자언어(stress-timed language)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의미 차이 현상에 대한 인지력이 약하다.

이에 대해 Celce-Murcia, Brinton & Goodwin(1996)는 비원어민 화자를 위한 단기간의 발음 교육과정의 가장 적합한 구성 방법은 담화 문맥 내에서 강세, 억

양, 리듬(rhythm)과 같은 초분절적 특징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Rubin(1994) 또한 여러 학자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학습자의 듣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속도(speed), 휴지, 강세와 리듬에 대해 강조하면서 초분절음소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3. 실제적 자료

1) 실제적 자료의 정의

실제적 자료란 학습자에 맞게 수정·보완된 자료가 아닌 원어민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구두 및 인쇄자료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라디오나 TV 방송, 뉴스, 영화, 원어민에 의한 강의 등 듣기와 관련된 것들과 식당 메뉴, 신문 광고, 길거리의 전단지, 상품 설명서 등 읽기와 관련된 것들을 포함한다.

2) 선행 연구

이전에 연구를 위해 사용된 실제적 자료로는 영화, 인터넷 동영상, 뉴스, 팝송, 미국 드라마, 애니메이션, 라디오 방송, 유튜브와 비디오 등이 있다.

Morrison(1989)은 실제적 자료로 쓰기 위한 라디오 방송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나 그러한 자료를 이용한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높은 학습 동기와 듣기 능력 향상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였다고 말하였다.

하지영(2003)은 CNN과 영화를 실제적 자료로 이용하여 연구하였으며, 수업을 한 이후 평가 한 자료에서 실험반이 비교반보다 유의미한 성적 향상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명숙과 이화자(2004)는 팝송을 이용하여 수업한 통제반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권지혜(2007) 역시 팝송을 학습 자료로 이용한 후 학습자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가 상승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팝송을 수업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진행 방

법과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곡을 선정한다면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은정(2005)은 뉴스를 듣기 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이 경우 듣기 능력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의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적합한 발화 속도와 정확한 발음을 접할 수 있으며, 듣기 뿐 아니라 어휘력 및 읽기, 말하기, 쓰기 등의 확장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홍기천과 남은아(2006)는 영화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한 결과 학생의 수준, 연령에 맞추어 교사에 의해 적절한 자료가 제공된다면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안인숙(2005)과 권혜란(2006)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채택하여 이용한 수업을 통해 영어 듣기 능력의 향상에 대한 효과, 흥미도와 자신감이 상승하였음을 증명하였다.

권영환과 김항아(2009)는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이 초등학생의 듣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으며, 흥미도, 자신감, 참여도 향상 및 불안감 감소에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도영미(2010)는 유튜브를 학습 자료로 사용한 이후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영어 및 듣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다양한 발화 속도에 노출된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듣기 이해력이 상승하였다고 하였다.

안희진과 정동빈(2011)은 미국 드라마를 활용하여 영어 듣기 수업을 진행한 실험반이 교재 중심의 듣기 수업을 진행한 통제반에 비해 듣기 성취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서로 다른 실제적 자료를 이용한 각각의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학습자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듣기 이해도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일호(2003) 역시 제한적인 외국어 학습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어권 문화를 충실히 담고 있으며,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실제적 자료를 교실수업에서 초기부터 채택한다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어 영어 학습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실제적 자료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도, 자신감 등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김동규(2008)가 조사한 학습자들의 실제적 영어자료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며 실제적 영어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것은 실제적 자료를 난이도를 고려하여 좋은 자료를 선정하는 교사의 안목과 효과적인 수업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일컫는다(성일호, 2003; 민한샘, 2007).

<그림 1> 실제적 자료의 장르별 특징 (Wilson, 2008)

장르	장점	언어적 특징	학습대상
코미디	잘 알려진 캐릭터. 흥미로운 내용. 문화적 내용 학습 용이. 익숙한 장소(호텔, 사무실, 집 등)와 상황을 통한 학습.	다양한 톤의 보이스 경험 가능.(아이러니, 비꼼, 꾀책감 등) 역양과 말장난(pun)을 익힐 수 있음.	상급 학습자.
영화	흥미롭고 역동적인 내용. 문화적 내용 학습 용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과업 구성이 용이.(다음 장면에서 일어날 상황 묻기 등) 여러 차시에 나누어서 수업 진행이 가능.	영화 장르에 따라, 다양한 역양의 언어를 접할 수 있음.	영화의 언어 수준에 따라, 중, 상급 학습자.
뉴스	토픽을 가지고 있어서, 내용이 흥미로움. 최신의 자료를 구할 수 있어 시의 적절한 수업 자료.	일정한 속도로 발화가 이루어지고 휴지(pause)가 일어나는 지점이 명확.	중, 상급 학습자.
TV 광고	내용이 흥미롭고,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비판적 사고를 하게 해 줌. 짧게나마 스토리를 가진 것은 유머와 모호성(ambiguity)를 배울 수 있게 해 줌.	사용되는 단어 수가 적어서 학습 부담이 적음. 설득하는 언어 표현을 배울 수 있음.	초급부터 상급 학습자 모두 이용 가능.
TV 다큐멘터리	다양한 이슈가 되는 분야에 관한 심층적 접근 가능. 흥미롭고 생생한 시각 자료. 주제 토론을 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개별화가 가능.	특정 주제에 관한 어휘 학습 가능. 형식적이며 비형식적인 언어를 모두 배울 수 있음.	상급 학습자.
애니메이션	내용이 재미있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음.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측하면서 들을 수 있음. 인물의 성격과 관계를 파악해 보는 연습이 가능.	언어 수준이 높지 않은, 긴 대화로 구성되어 있음.	어린이와 초급 학습자.
TV/라디오 토크쇼, 인터뷰	연예인이 출연하므로 흥미 있음. 시각적 자료가 청취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음. 인터뷰 연습을 하는 과업으로 응용하기 쉬움.	구조화된 질문과 대답의 유형을 가지고 있음. 주제 전환 방법, 말을 주고 받는 방법 등 담화 표지어를 익힐 수 있음.	주로 상급 학습자.

Wilson(2008)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코미디, 영화, 뉴스, TV 광고, TV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TV 또는 라디오 토크쇼와 인터뷰에 대한 장점 및 언어적 특징, 그에 맞는 학습대상에 대하여 열거하였다. 이는 실제적 자료가 모든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적절한 수준의 실제적 자료가 그에 맞는 학습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료 선택은 교사의 학습자들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한국인 학습자의 취약점과 수정방안

1. 분절음소에서의 취약점

1) 자음(conson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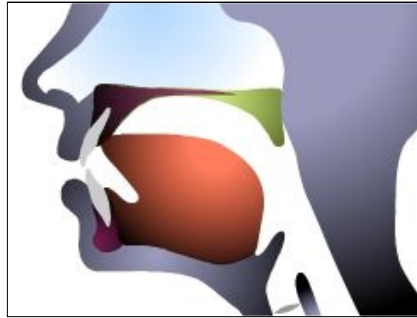
<그림 2> 영어와 한국어의 자음 (변명섭, 1986: 259)

調音點 聲帶振動	兩脣		上齒 下層		上齒 舌端		上齒槽 舌端		齒槽槽 舌端端		齒硬口蓋 前舌面		硬口蓋 中舌面		軟口音 後舌面		聲門		
	無	有	無	有	無	有	無	有	無	有	無	有	無	有	無	有	無	有	
	調音方式																		
口	閉鎖音 (破裂音)								t d						k g				
	摩擦音		f v		θ ð				s z		ʃ ʒ						h ɦ		
腔	閉鎖音 (破裂音)										tʃ dʒ								
	舌側音								l ɹ										
音	推移音 (半母音)		w								r		j						
	鼻(腔)音		m						n						ŋ				

영어의 자음은 총 24개이며 <그림 2>는 영어와 한국어의 자음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위의 <그림 2>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모든 자음이 일 대 일의 관계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인 학습자가 영어의 자음을 발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확연하다. 이 장에서는 한국인 학습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미국식 영어를 기준으로 한국인 화자가 영어 자음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알아보려고 한다.

(1) /t/와 /d/

<그림 3> /t/와 /d/의 조음위치⁶⁾



/t/와 /d/는 치경파열음(alveolar plosive)으로써 <그림 3>과 같이 연구개(soft palate)를 올려 비강(nasal cavity)으로 통하는 통로를 막고, 혀끝(tip of the tongue)을 치경(alveolar ridge)에 대고 혀의 좌우를 잇니 안쪽에 댄으로써 구강(oral cavity)을 완전히 차단시켰다가 혀끝을 떼면서 내는 파열음(plosive)이다. 그리고 /t/와 /d/의 차이점은 /t/는 무성음(voiceless)이고 /d/는 유성음(voiced)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t/와 /d/의 조음점은 앞뒤에 오는 소리의 조음점에 따라서 동화되기 때문에 원래의 조음점이 약간씩 바뀐다. 하지만 한국인 화자들은 이러한 조음점의 변화를 주는데 익숙지 않아 여러 가지 오류 현상들을 발생시킨다.

(가) 비개방음(unreleased sounds) /t/

일반적으로 어말(word final)에 위치 또는 파열음 앞에 오는 경우에는 /t/를 공기를 터트려서 내는 파열음으로 내지 않고 혀를 잇니 뒤 잇몸에 대기만 하고 /t/를 발음하면서 공기를 막아서 내는 폐쇄음으로 유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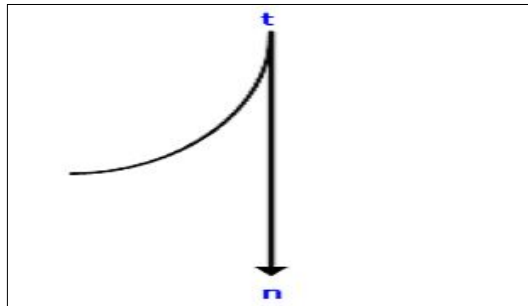
cut /kʌt/-/컷/ light /laɪt/-/라잇/ state /steɪt/-/스테잇/

하지만 한국어는 모든 단어가 음절을 형성하려 하는 음절박자언어이기 때문에

6) 자료출처: <http://www.uiowa.edu/~acadtech/phonetics/english/frameset.html>

한국인 학습자들은 마지막 어말자음 이후에 /-/를 추가하여 cut, light, state를 각각 /컷트/, /라이트/, /스테이트/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4> /n/ 소리 앞에 오는 비개방음 /t/



또한, /n/ 소리 앞에 오는 /t/ 역시 비개방음 /t/로서 <그림 4>처럼 비개방음 /t/로 가면서 억양은 날카롭게 위로 올라가는 소리가 된 다음 /n/에 와서 억양을 떨어뜨려야 한다.

written /'ritn/ /'ri^hn/
 sentence /'sentəns/ /'sen^hns/

원어민이 발화하는 written과 sentence는 /릿은/, /센은스/와 같이 /t/ 소리는 거의 발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인 화자들은 written과 sentence를 /리튼/, /센텐스/처럼 /t/를 모두 개방하여 발화한다.

(나) /t/의 탈락

/t/와 /n/은 입 안에서 조음되는 위치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n/이 /t/앞에 있으면서 약모음이 /t/ 뒤에 오는 경우에는 /t/ 발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interview /'Intərvju : / /'Inərvju : /
 internet /'Intənet/ /'Inənet/

want to /wən tu/ /wənə/

interview, internet, interface의 사전상의 발음은 /'ɪntərvju:/, /'ɪntənet/, /wən tu/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발음은 /t/가 /n/의 영향으로 인해 /'ɪnərvju:/, /'ɪnənet/, /wənə/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 화자는 사전상의 발음에 따라 /인터뷰/, /인터넷/이라 발음하며 'want to'는 /원트 투/로 각각의 음절을 늘리며 발화하는 경우가 많다.

(다) 설탄음(flap sound)

/t/와 /d/가 강모음과 약모음 사이에 오는 경우에는 혀가 치경 뒷부분을 빨리 한번 치면서 내려오며 나는 소리를 내는 데 이것을 설탄음(flap sound)이라고 하고 음성기호 [ɾ]로 나타낸다.

(a) latter - ladder

 bitter - bidder

 seeting point - seeding

 writer - ri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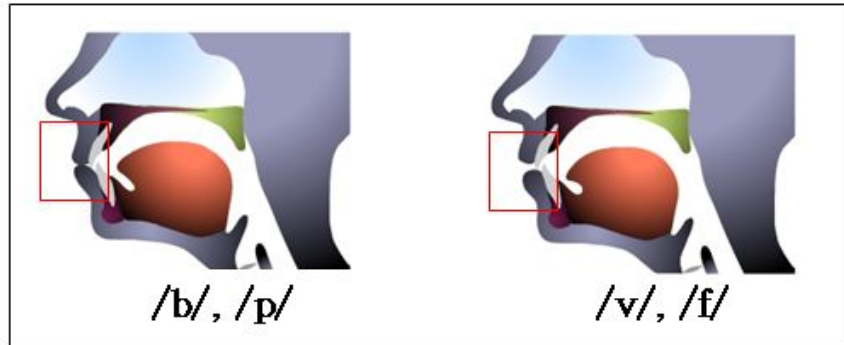
(b) it is try it on at eleven

add on made it hid it

(a), (b) 단어 내의 /t/와 /d/는 모두 [ɾ]로 발음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 학습자들은 /t/, /d/를 한국어의 /ㅌ/, /ㄷ/에 일대일 관계로 대응시키려 한다. (b)에서는 연음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여 /애드 온/, /매이드 잇/과 같이 발음하려 하는 학습자들이 대다수이다.

(2) /b/, /p/와 /v/, /f/

<그림 5> /b/, /p/와 /v/, /f/의 조음위치⁷⁾



<그림 5>에서 보듯이 /b/, /p/는 양순 파열음(bilabial plosive)으로써 연구개를 끌어올려 비강으로 통하는 통로를 막고 동시에 두 입술을 붙여 허파(lungs)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막은 후, 붙였던 입술을 갑자기 터뜨리며 압축되었던 공기를 입 밖으로 파열시키며 내는 소리이다. /v/, /f/는 순치 마찰음(labiodental fricative)으로서 윗니를 아랫입술 위에 살짝 얹어 그 좁은 틈으로 공기를 마찰시켜 얻는 소리이다. 이 중 /b/, /v/는 유성음이며 /p/, /f/는 무성음이다.

(가) /b/와 /p/의 묵음

pt-, ps-, pn-로 시작하거나 어중에 -pb-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p/가 발음되지 않는다.

(a) psalm /sa : m/ cupboard /'kʌbəd/ psychology /saɪ'ka : lədʒi/

(a)의 예 중 특히, cupboard 발음 시 한국인 학습자들은 cup과 board의 발음을 알고 있기에 각각을 발음하려 하여 /컵 보드/라고 발음한다. 또한, ps-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온 경우에 한국인 화자들은 발음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묵음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프/ 소리를 내어 발음한다. 또한, 사전

7) 자료출처: <http://www.uiowa.edu/~acadtech/phonetics/english/frameset.html>

찾은 후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익힌다 하더라도 단어 암기의 편의성을 위하여 묵음 처리해야 할 /p/를 /프/로 발음하는 학습자도 존재한다.

/b/도 어말에서 -mb, -bt를 이루거나 어중에서 -bt-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발음이 되지 않는다.

(b) lamb /læm/ comb /koʊm/ doubt /daʊt/

(b)의 단어를 학습할 때에 학습자들은 /b/ 소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당황하며 lamb를 /램브/와 같이 발음하기도 한다. 그리고 만약 각 단어에 해당하는 발음을 제대로 습득하였더라도 문제는 발음을 들려주고 철자를 적으라고 하는 경우에 묵음이 된 /b/를 빠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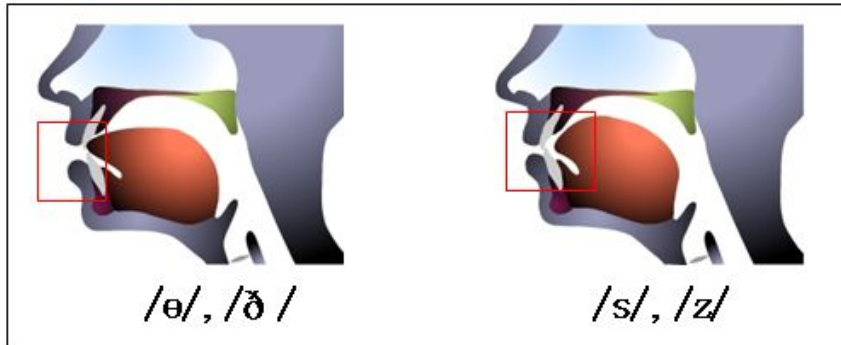
(나) /b/, /v/와 /p/, /f/

한국인 학습자들은 /b/, /v/를 한국어의 유사발음인 /ㅂ/로 /p/, /f/를 /ㅍ/로 대응시키려 한다. 이는 영어에 존재하는 순치음인 /v/, /f/를 내는 조음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학습자가 모국어의 비슷한 음으로 대처하려 하는데서 오는 오류라 하겠다. 이에 대한 오류는 (a)와 같은 최소 대립쌍으로 연결된 단어들을 이용한 연습을 통하여 각각의 발음상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a) bine /bain/ - vine /vain/ pine /pain/ - fine /fain/
 bile /baɪl/ - vile /vaɪl/ pile /paɪl/ - file /faɪl/

(3) /θ/, /ð/와 /s/, /z/

<그림 6> /θ/, /ð/와 /s/, /z/의 조음위치⁸⁾



/θ/와 /ð/는 치간 마찰음(dental fricative)으로써 윗니와 아랫니를 가볍게 벌리고 그 사이에 혀끝이 살짝 보일 정도로 밀어 넣고 입김을 밀어내면 공기가 마찰되어 나오면서 나는 소리이다. /s/와 /z/는 치경마찰음(alveolar fricative)으로써 혀끝이나 혀날을 치경에 가볍게 댄 후, 혀의 좌우를 대어 공기가 혀의 좌우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한다. /θ/와 /s/는 무성음이고, /ð/와 /z/는 유성음이다.

(가) /θ/와 /s/, /ð/와 /d/

한국인 학습자는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θ/를 발음하기 위해 한국어의 발음과 유사한 /ㅅ/를 이용하여 발음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근래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θ/의 발음을 강조하다 보니 /θ/의 발음의 정확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s/의 발음조차 /θ/처럼 발음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한국어의 /ㅅ/조차도 /θ/처럼 발음하여 두 이 사이에 혀끝을 내보이며 학습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 학습자들은 /ð/와 /d/를 한국어에 있는 /ㄷ/로 발음하려 한다.

8) 자료출처: <http://www.uiowa.edu/~acadtech/phonetics/english/frameset.html>

(a) /ə/ - /s/

think - sink

fath - face

path - pass

theme - sem

(b) /ð/ - /d/

they - day

bathe - bade

though - dough

then - den

(a)는 /ə/와 /s/가 (b)는 /ð/와 /d/가 대립되어 의미상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발음상 주의하여야 한다.

(4) /l/와 /r/

<그림 7> /l/와 /r/의 조음위치⁹⁾



/l/은 치경설측음(alveolar lateral)으로써 혀끝 또는 혀날을 치경에 대고 혀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 공기를 내보내며 얻는 말소리이다. /r/은 경구개 치경 접근음(palato-alveolar approximant)으로써 혀끝을 치경 뒤로 끌어올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l/과 /r/은 둘 다 유성음이다.

9) 자료출처: <http://www.uiowa.edu/~acadtech/phonetics/english/frameset.html>

(가) light /l/와 dark /l/

(a)와 같이 어두, 어두 자음군, 모음 사이의 어중에서는 밝고 가볍게 들리는 /l/ 소리가 발음되며 이것을 밝은[l](light [l])이라고 하며 (b)처럼 어말이나 모음 뒤 자음 앞에서는 흐리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소리가 나며 이것을 어두운[l](dark [l])이라고 하고 음성기호 [ɫ]로 표시한다. 한국인 학습자는 이 두 음의 차이를 인지하는 데 어려워한다. 이로 인해 어두운 [ɫ]을 들은 경우 /r/로 받아 들여 ‘feel’을 ‘fear’로 인지하는 학습자도 존재한다.

(a) leave let glance fly teller silly

(b) feel dolll help bulb

(나) 삽입-r (intrusive r)

/r/이 없는데도 두 모음이 충돌할 때 앞의 모음이 /ə/인 경우, 두 모음 사이에 /r/을 삽입하는데 이것을 삽입-r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구를 읽어준 후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단어를 적어보라 하면 ‘r’을 추가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idea of [aɪdɪə r əv]

china office [ʃaɪnə r a : fɪs]

한국인 학습자들이 /l/과 /r/에 대하여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음소 /r/의 두 개의 변이음인 /l/과 /r/을 구별하여 발음하는 것이다. 꾸준한 /l/과 /r/에 대한 차이점의 교육으로 인해 한국인 학습자들의 /l/과 /r/의 차이점을 인지하여 듣는 부분은 이전보다 강해졌다. 하지만 한국인 학습자들은 /r/을 아직도 한국어의 /r/로 발화하려 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실험에 참여한 중학생들을 예로 들자면, 이들은 /r/ 발음을 다른 학습자들 앞에서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부담감을 느꼈다. 또한, 미국식 영어의 /r/ 발음을 실행한 학습자에 대한 다른 학습자들은 “너무 굴린다.”, “느끼하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로 인해 /r/ 발음을 한국어의 /r/로 발음하는 학습자들은 증가하였다. 교사들은

<표 1>과 같은 /l/와 /r/의 발음 차이가 단어에서 어떠한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꾸준한 설명을 학습자들에게 함으로써 올바른 발음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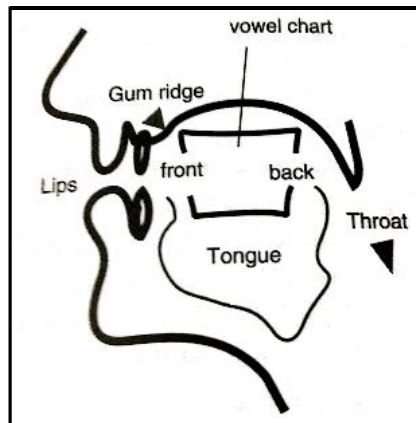
<표 1> /l/와 /r/의 최소 대립쌍

/l/		/r/	
b <u>l</u> ight	(병충해)	b <u>r</u> ight	(밝은)
c <u>l</u> ash	(산산히 부수다)	c <u>r</u> ash	(땡땡 울리다)
<u>l</u> ong	(긴)	w <u>r</u> ong	(틀린)
<u>l</u> ock	(자물쇠)	<u>r</u> ock	(바위)
<u>l</u> ane	(좁은 길)	<u>r</u> ain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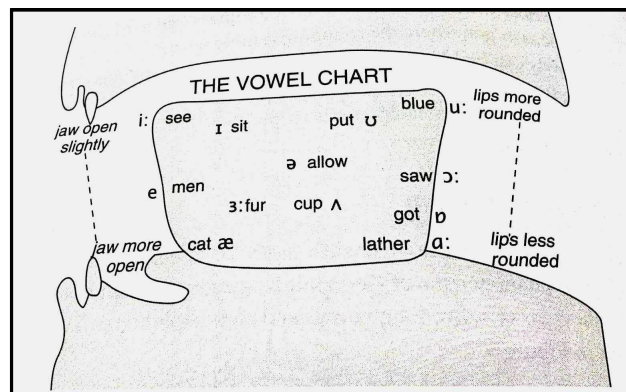
2) 모음(vowels)

모음은 지리적인 지역, 나이, 성별 또는 사회적, 교육적 배경 요인으로 인해서 원어민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발화되어지기 때문에 목표어 학습자가 모음을 학습하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 영어 모음은 자음과 달리 공기가 방해를 받지 않으며 조음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음처럼 조음기관의 명칭과 조음방법에 의해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다. 구강 내에서 모음이 발화되어지는 지점은 <그림 8>의 vowel chart의 영역과 같으며 <그림 9>는 <그림 8>의 vowel chart 영역에서 실제 발화되어지는 모음의 가장 근접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Vowel space in relation to the mouth¹⁰⁾



<그림 9> Position of vowel chart in oral cavity¹¹⁾



10) Pamela. (2011: 66) Figure 5.5.

11) Pamela. (2011: 68) Figure 5.9.

(1) /i/와 /ɪ/

<그림 10> /i/와 /ɪ/의 조음위치¹²⁾



/i/와 /ɪ/는 모두 전설고모음(front-high vowel)으로써 두 모음의 차이는 /i/는 조음기관이 긴장되는 긴장음(tense)이고 /ɪ/는 조음기관이 이완되어 발음되는 이완음(lax)이다. <그림 10>에서 /ɪ/의 혀의 위치가 /i/보다 좀 더 낮아지며 혀와 입천장 사이도 더 벌어진다. 또한 긴장음 /i/가 /ɪ/ 보다 입의 좌우 가장자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양쪽으로 더 넓게 당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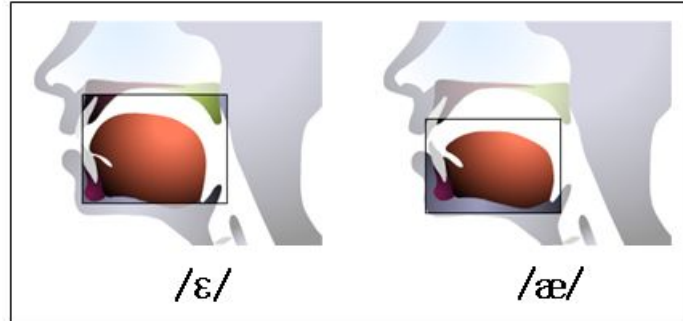
<표 2> /i/와 /ɪ/ 최소 대립쌍

/i/	/ɪ/
she <u>e</u> t (홀이불)	sh <u>i</u> t (대변)
re <u>a</u> ch (도착하다)	ri <u>c</u> h (부유한)
fe <u>e</u> l (느끼다)	fi <u>l</u> l (채우다)
ee <u>l</u> (뱀장어)	i <u>l</u> l (아픈)
lea <u>k</u> (누설하다)	li <u>ck</u> (핥다)

12) 자료출처: <http://www.uiowa.edu/~acadtech/phonetics/english/frameset.html>

(2) /ɛ/와 /æ/

<그림 11> /ɛ/와 /æ/의 조음위치¹³⁾



/ɛ/는 평순전설중모음(unrounded front-mid vowel)이며 이완음이다. /æ/는 평순전설저모음(unrounded front-low vowel)으로써 입을 /ɛ/ 보다 더 많이 벌리고 조음기관을 이완시켜 내는 이완음이다. 영어의 /ɛ/는 우리말의 /에/와 유사하게 발음하면 되지만 /æ/는 우리말의 /하/보다도 의식적으로 더 턱을 많이 내려서 발음해야 하는 모음이다. 한국인 학생들은 뜻의 차이를 가져오는 /ɛ/와 /æ/ 이 두 음소를 구별하지 못하여 의미상의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표 3> /ɛ/와 /æ/ 최소 대립쌍

/ɛ/	/æ/
met (만났다)	mat (깔개)
me <u>rr</u> y (즐거운)	ma <u>rr</u> y (결혼하다)
de <u>a</u> d (죽은)	da <u>a</u> d (아빠)
be <u>g</u> (구걸하다)	ba <u>a</u> g (가방)
se <u>n</u> d (보내다)	sa <u>a</u> nd (모래)

13) 자료출처: <http://www.uiowa.edu/~acadtech/phonetics/english/frameset.html>

(3) schwa /ə/

<그림 12> /ə/의 조음위치¹⁴⁾



/ə/는 schwa라고 불리어지며 영어의 모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a)에서 보듯이 강세가 없는(unstressed) 음절이나 강세를 받던 모음이 어형이 변화되면서 그 강세를 상실하고 약화 모음 /ə/로 발음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 (a) ago about
 a cup of coffee
 He can ride a bike.
 He can't drive a car.

14) 자료출처: <http://www.uiowa.edu/~acadtech/phonetics/english/frameset.html>

2. 초분절음소에서의 취약점

1) 단어 강세

(1) 단일어(simple word)의 강세

잘못된 위치에 단어강세를 두는 경우에는 종종 그 의미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유의하여 발음하여야 한다.

- | | | |
|-----|----------------------------|--------------------------|
| (a) | 'billow /'bɪləʊ/ (부풀어오르다) | be'low /bɪ'ləʊ/ (아래에) |
| | 'insight /'ɪnsaɪt/ (통찰력) | in'cite /ɪn'saɪt/ (선동하다) |
| (b) | contract /kə:'ntræk/ (계약서) | /kən'træk/ (줄이다) |
| | project /prə:'dʒekt/ (과제) | /prə'dʒekt/ (기획하다) |

(a)는 발음은 같지만 철자와 의미가 다르다. 구어체에서는 철자가 아닌 발음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잘못 위치에 강세를 두었을 경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b)의 경우는 단어는 같으나 강세의 위치에 따라 명사,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험에 참가한 대상으로 (a)의 단어 중 billow와 below를 읽어 보라고 한 경우 학생들은 두 단어 모두 첫 음절에 강세를 두어 발음하였다. 그리고 /'ɪnsaɪt/와 /ɪn'saɪt/를 제시하여 단어의 철자를 말하여 보라고 한 경우 모두 'insight'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b)의 /kə:'ntræk/와 /kən'træk/를 보고 'contract'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의미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한국인 학습자 중 대부분은 문장 내에서 단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시험을 보기 위해 단어 자체만을 암기한다. 또한 암기해야 할 단어수의 증가로 인해 학습자들은 사전을 찾고 발음과 강세에 유의하여 듣고 따라하지 않고 단지 철자만을 보고 단어를 암기한다. 여기에서 철자와 발음이 일대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잘못된 발음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며 강세에 유의하지 않고 암기하기 때문에 모든 단어의 첫 번째 부분에 강

세를 넣거나 잘 모르는 단어는 끝을 올리면서 상대방에게 물어보듯이 발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운학자들이 제안하듯이 학습자들은 단어 암기 할 때에 단어의 강세를 표시하고 발음을 따라 읽으며 단어 강세를 익히고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읽어봄으로써 단어의 문장 강세까지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2) 합성어(complex words)의 강세

<표 4>에서 보듯이 명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앞에 있는 명사에 강세가 오며 형용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수식관계의 구조에서는 뒤에 있는 명사에 강세가 온다.

<표 4> 복합명사와 명사구 강세 비교

'명사 + 명사	형용사 + '명사
'White House (백악관)	white 'house (하얀 집)
'greenhouse (온실)	green 'house (녹색 집)
'darkroom (암실)	dark 'room (어두운 방)
'hot dog (핫도그)	hot 'dog (뜨거운 개)

(a) I went to the white 'house. [나는 하얀 집에 갔다.]

(b) I went to 'White House. [나는 백악관에 갔다.]

위의 문장 (a)에 관사 'the'가 있기는 하나 이는 기능어이기 때문에 소리가 약화되고 강조되지 않으므로 (a)와 (b)의 발화 속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문장 (a)는 명사 'house'에 강세를 주고 'white'는 명사인 'house'를 수식하여 “나는 하얀집에 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문장 (b)에서는 'White'에 강세를 두고 “나는 백악관에 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화자가 강세를 합성어의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청자에게 잘 못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문장 강세

문장 안에서는 대부분 내용어(content words)에 강세가 오며 기능어(function words)는 대부분 약하게 발음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강세를 받기도 한다. 내용어란 의미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말로서 대개 명사(nouns), 동사(verbs), 형용사(adjectives), 부사(adverbs) 그리고 가끔 when, why, where 등의 의문사에 해당한다. 기능어란 문법적인 기능외의 다른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 단어를 뜻하며 대명사(pronouns), 전치사(prepositions), 접속사(conjunctions), 조동사(auxiliary verbs), 관사(articles), 부정대명사(indefinite pronouns)가 이에 속한다.

(a) 문장 강세의 위치에 따른 함축하는 의미의 변화¹⁵⁾

문장 강세	함축하는 의미
I may drive to New York.	Not she/he...
I 'may drive to New York.	Maybe, I'm not sure.
I may 'drive to New York.	Not fly, subway, train...
I may drive to New 'York.	Not Boston, LA...

(a)처럼 한 문장 내에서 어떠한 단어에 강세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함축되는 의미는 달라진다. 하지만 한국인 학습자는 위의 문장 발화시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강세를 주지 않고 한 음으로 읽는 경향이 있으며, 문장의 의미 파악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장의 끝을 올리며 발음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되어진다.

3) 억양(Intonation)

억양(intonation)은 언어의 멜로디(음조)이며 오르내리기 소리의 높낮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음조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감정을 전달하는

15) Lisa(2009: 93).

데 이용된다. 구어체에서 억양은 구두법을 대신한다. 이야기가 끝난 것인지 할 얘기가 더 있는 것인지, 질문인지,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억양을 통해 듣는 사람에게 전달된다. 억양은 또 단어만 가지고는 전달할 수 없는 정보도 전달한다. 분노, 놀람, 혼란스러움, 주저, 비꼼, 관심, 관심 없음 등을 나타낸다.

평서문에서는 문장의 끝에서 목소리를 낮추면서, Yes/No 의문문에서는 문장 끝에서 목소리의 음조를 높인다. 또한, 마무리가 안 된 생각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문장이나 단어 중간에 소리가 높아졌다가 살짝 낮아진다.

(a) S1 : She is a student.
 S2 : (b1) Is she really?
 (b2) Is she really?

(a) S1은 “그 여자가 학생이다.”라는 신정보를 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S2의 2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b1)은 중립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b2)는 정중한 대답이라는 인상이 짙은 반응이다. 이 의미의 차이는 S2의 억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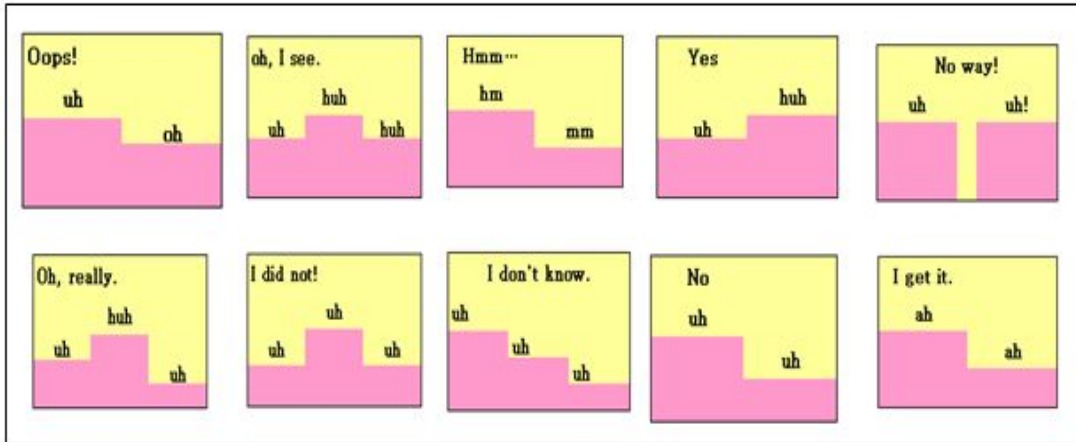
(c) 억양 변화에 따른 Yes의 다양한 함축 내용

Yes	falling	"The answer is yes."
Yes	high rising	"Did you say 'yes?'"
Yes	low rising	"Please go on, I'm listening."
Yes	falling-rising	"I'm doubtful."
Yes	rising-falling	"I'm certain."

(c)에서 보듯이 억양 변화에 따라 Yes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한국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억양 변화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

며 “Yes”를 사전 상의 의미 그대로 “네./응.”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험 수업 중 학생들은 high rising와 low rising의 차이를 구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들어냈다.

<그림 13> 억양 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의 예



<그림 13>의 계단위에 적힌 말들은 억양을 포함하지 않고 말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표현들이다. 여기에서 억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실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처음에는 <그림 13>을 따라하는데 힘들어 하였으나 자신의 억양의 따라 다른 의미를 내포하며 여러 가지 의미로 변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흥미를 내보였다.

4) 연음(linking)

연음(linking)이란 말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단어를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원어민들은 여러 단어들에 같은 생각 단위 안에 들어 있으면, 이 단어들을 연결 하거나 이어서 말한다. 앞 단어의 끝소리에 이어서 다음에 오는 단어의 첫 소리를 발음하는 것이다.

(a) 자음 + 모음 : I like it. /I lie kit/

(b) 자음 + 자음 : help Paul /help all/

(c) 모음 + 모음 : I am /I (y)am/ ->연결음 y가 추가됨.

위의 (a), (b), (c) 발화시 한국인 학습자들은 단어 각각을 모두 음절화 시켜 발음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a)는 /아이 라익 키트/, (b)는 /헬프 폴/ 그리고 (c)는 /아이 엠/으로 발화하는데 연습 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 형태를 익힐 필요가 있다.

(d) /t/, /d/, /s/, /z/ + y의 연습 법칙

t + y = ch What's your name? /wəcher name/

d + y = j How did you like it? /hæo:jə lye kit/

s + y = sh Bless you. /blesshue/

z + y = zh Who's your family? /hoozhier frend/

실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러한 연습 현상을 발화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어색해하였으나 회가 거듭할수록 흥미와 자신감이 더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5) 축약(Contractions)

축약은 앞에 오는 단어와 연결될 때 말이 짧아지는 것을 말한다.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축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표 5> 구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축약 현상

you	ya	wouldn't have	wouldna
because	'cuz	couldn't have	couldna
let me	lemme	going to	gonna
give me	gimme	what do you...?	wadda you...?
do you want to...?	wanna...?	a lot of	a lotta

have got to..	gotta	kind of	kinda
did you...?	joo...?	out of	adda
should've	shoul'da	go to	goddu
would've	woulda	yes	yeah, yup
could've	coulda	no	nope
must've	musta	-ing	in'
shouldn't have	shouldna	I don't know	I dunno

위 <표 5>의 내용은 구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축약 현상이다. 축약이 일어나서 발음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 수업 참여자들은 'wanna, gonna'와 같은 표현은 학습자들이 많이 접하다 보니 듣고 발화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외의 '- of'로 끝나는 부분에서 학습자들은 /f/에 마지막 음절 /-/를 추가하여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들을 때에도 'of'를 /a/로 발음을 끝내는 경우에는 무엇을 말하는지 듣는 것을 힘들어했다. 또한, must've, could've 등과 같은 축약 현상에 생소해 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듣고 발화하는 데에 힘들어했다.

IV.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1. 미국의 소리 기원¹⁶⁾

미국의 소리는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여한 직후인 1942년 2월 24일 뉴욕에서 나치 독일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개시하였다. 독일어 방송 이후에 이탈리아어, 불어, 영어, 한국어 방송 등이 전파를 뒀다. 전쟁 중에 미국의 소리는 전시 정보국(Office of War Information) 소속이었으나 전쟁이 끝나자 미 국무부 산하로 들어갔다. 그 후 1953년 미국 정부의 해외 공보 업무와 문화 교류 사업을 관장하는 해외 공보처(U.S. Information Agency)가 신설되면서 미국의 소리는 USIA로 옮겨갔다. 1999년 10월 1일, USIA가 미 국무부에 통합되자, 미국의 소리는 방송이사회(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아래 독립하게 되었다. 방송이사회는 9명의 방송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8명은 대통령이 임명해 상원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있다. 나머지 한 이사직은 국무장관이 자동으로 맡게 되어있다. 라디오 단파 방송으로 시작한 미국의 소리는 현재 초단파와 AM, FM 라디오뿐만 아니라 위성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방송되며 한국어를 포함해 스와힐리어, 다리어 등 사용하는 언어가 40개 이상이나 된다. 이 방송의 청취자는 매주 약 1억 4100만 명이다.

2. 미국의 소리 특징

미국의 소리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독립된 편집권, 미국의 소리 현장, TV와 라디오 방송, 인터넷 방송이다.

미국의 소리는 미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만 정부에서 독립된 방송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기에 독립된 편집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고

16) 자료출처: <http://www.voanews.com/english/news/>, <http://www.insidevoa.com/about>

있다.¹⁷⁾

The VOA Charter¹⁸⁾

1. VOA will serve as a consistently reliable and authoritative source of news. VOA news will be accurate, objective, and comprehensive
2. VOA will represent America, not any single segment of American society, and will therefore present a balanced and comprehensive projection of significant American thought and institutions
3. VOA will present th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clearly and effectively, and will also present responsible discussions and opinion on these policies

그리고 미국의 38대 대통령인 Gerald Ford는 1976년에 미국의 소리 현장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소리 현장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포괄적인 뉴스를 방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 사회의 실상과 주요 사상 및 제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미국의 정책을 분명하게 알리는 한편 이에 관한 책임 있는 토론과 견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뉴스 방송을 추가하는 미국의 소리 뉴스센터는 30,000 평방 피트의 규모로 직원은 상시 상주하고 있으며 하루에 150에서 200개 내외의 기사를 모든 언어¹⁹⁾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소리는 20개의 라디오 방송실, 33개의 녹음실, 31개의 전문적인 오디오, 더빙 방송실, 4개의 TV 방송실, 32개의 비디오 편집실 그리고 주 조종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미국 내의 22명의 기자, 해외의 16명의 특파원, 90명 이상의 비상근 통신원(stringer)들도 이 뉴스센터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들이 보내오는 보도를 24시간 녹음하는 녹음실이 있으며 22개의 중계소와 임대 시설을 통해 미국의 소리는 5대양 6개 대륙에 있는 청취자들에게 인공위성과 단파, 중파로 프로그램을 송출한다.

미국의 소리 웹사이트는 매일 40개 이상의 언어로 세계의 정보를 제공하며 인

17) 미국의 소리는 독립된 편집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미국정부기관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위대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18) 자료출처: <http://www.insidevoa.com/about/faqs/>

19) 모든 언어라 함은 미국의 소리에서 제공하는 약 40개 이상의 언어를 일컫는다. (약 43개의 언어)

터넷을 통해 음성 파일로 각 언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일부 언어 방송은 생방송 또는 녹화된 비디오 화면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기도 한다.

3. 미국의 소리 구성

미국의 소리는 크게 전 세계 뉴스,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비디오 자료 그리고 비영어권 사람들을 위한 영어 학습을 위한 공간(Learning English)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 뉴스는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예술과 오락, 경제, 교육, 건강, 종교 그리고 과학과 기술 분야로 나누어 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일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생방송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으며 중계되었던 자료를 파일로 제공받을 수 있고 비디오 영역에서 역시 뉴스로 제공되었던 자료의 내용을 비디오와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비영어권 사람들을 위한 영어 학습 공간은 특별한 영어 수업 공간(SE : Special English), TV와 라디오 프로그램과 교실(The Classroom)로 분류되어 있다.

이 네 영역에서 제공되는 정보 모두 실제적 자료로써 사용하기에 이점이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영어권 사람들을 위한 영어 학습 내용 중에서도 SE를 이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SE²⁰⁾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간단하고 분명한 영어로 전달하고자 하며 최종목표인 정보 공유를 통해 세계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성되어진 것이다. SE는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국제 표준 영어를 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1,500개의 단어를 이용하고 있다. 속도는 일반적인 영어의 속도²¹⁾에 비하여 약 2/3정도 느린 편이다. 때문에, 원어를 위해 만들어진 CNN, AP등과 같은 뉴스 방송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20) SE(Special English) : 1959년 10월 19일에 첫 방송이 되었다.

21) 일반적인 영어의 속도란 Pimsleur et al.(1977)가 제시하는 보통 속도인 160~190 wpm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SE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SE의 세부 주제는 미국(U.S.A), 세계(World), 미국의 역사(U.S. History), 미국의 삶(American Life), 예술과 오락(Arts and Entertainment),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사업(Business), 농업(Agriculture) 그리고 과학과 기술(Science Technology)로 이루어져있다. 각 기사 내용(script)은 음성 파일과 함께 제공한다.

4. 미국의 소리 자료

본 연구를 위해 미국의 소리 자료²²⁾의 분야 별 내용 중 10개의 기사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기사들은 연구를 준비하던 기간 중 2011년 9월 7일에서 2011년 11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추출한 기사의 내용은 <표 6>과 같다. 10개의 기사는 교육으로 분류된 내용 4개, 경제 2개, 건강 2개, 기술 1개, 새로운 세계 소식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사들 중에서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Goldwave²³⁾를 이용하여 속도를 조정하여 120~160 wpm 정도로 속도를 조정하였다.

<표 6> 미국의 소리 수업 자료

순서	분야	제목	음성파일 시간	분당 단어수 (wpm)	기사일자
1	Health	The World at 7 Billion, and Growing	3:20	130.8	2011.11.01
2	Education	East Asian Educators Look to US Schools for Ideas	3:47	130.3	2011.10.12
3	Economics	Obama Makes His Case for Jobs Plan	3:13	126.8	2011.10.21
4	News	With Gadhafi Dead, What Does Future Hold for Libya	4:13	120.7	2011.10.22
5	Technology	A Kitchen That Talks- This One Teaches French	3:34	151.7	2011.10.30
6	Health	Fukushima Children Tested for Thyroid Cancer Risk	3:30	129.0	2011.10.18
7	Education	Study-Abroad Programs Take Deeper Dive Into Local Culture	3:34	147.8	2011.10.26
8	Economics	Two American Professors Win Nobel for Studies on Effects of Economic Policy	3:08	120.6	2011.10.13
9	Education	New School Trains in Different Religions	3:20	134.1	2011.09.21
10	Education	Websites Show Young People How to Save	3:49	156.4	2011.0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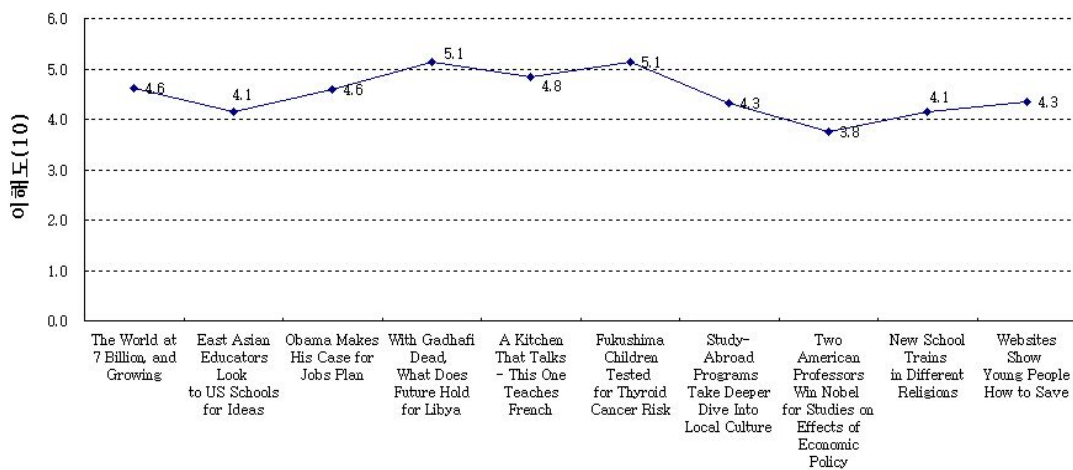
22) 이 장 이후 나오는 '미국의 소리'와 관련된 부분은 하위 메뉴로 존재하는 'Special English'를 지칭한다.

23) GoldWave는 컴퓨터에서 재생, 녹음, 편집, 오디오 파일 변환이 가능한 전문 디지털 오디오 편집기이다.

미국의 소리 자료의 최대 장점은 기사 내용과 함께 음성 파일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은 실제적 자료를 적용했을 경우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알고 있기는 하나 수업에 이를 꾸준히 적용하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연령별 수준에 맞는 실제적 자료를 꾸준히 찾고 적용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소리는 매일 새로운 세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기사 및 그에 대한 음성 파일을 제공함으로써 자료 준비 시간을 단축시켜준다. 이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실제적 자료를 찾는 시간보다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수업 지도안을 구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의 소리 자료를 이용하여 실험 수업 중 자료 내용에 대한 참여 학생들의 내용 이해도, 흥미도, 과제로 내준 빈칸 채우기에 대한 정확도에 대하여 매 시간 조사하였다. 이해도는 100% 이해했을 경우를 10으로 보고, 0에서 10의 수치로 나타내게 하였으며 흥미도는 “아주 흥미롭다”, “흥미롭다”, “그저 그렇다”, “관심없다”, “아주 관심없다”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과제로 내어준 빈칸 채우기²⁴⁾의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빈칸의 개수가 다르기에 평균을 내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맞는 주제 선정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알 수 있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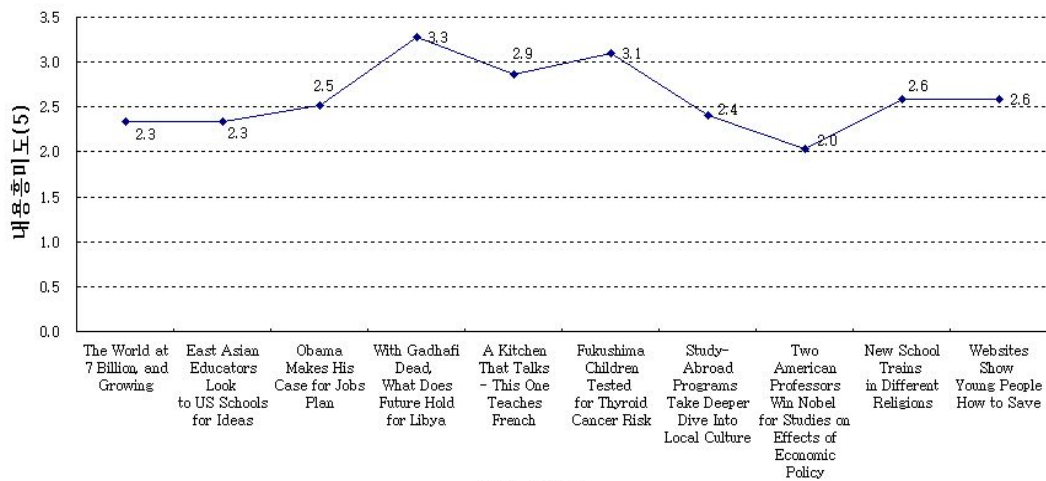
<그림 14> 미국의 소리 자료 이해도



24) 과제로 내어준 빈칸 채우기를 해서 오면 답안지를 주어 그 다음 수업 시간까지 빈칸을 채워서 오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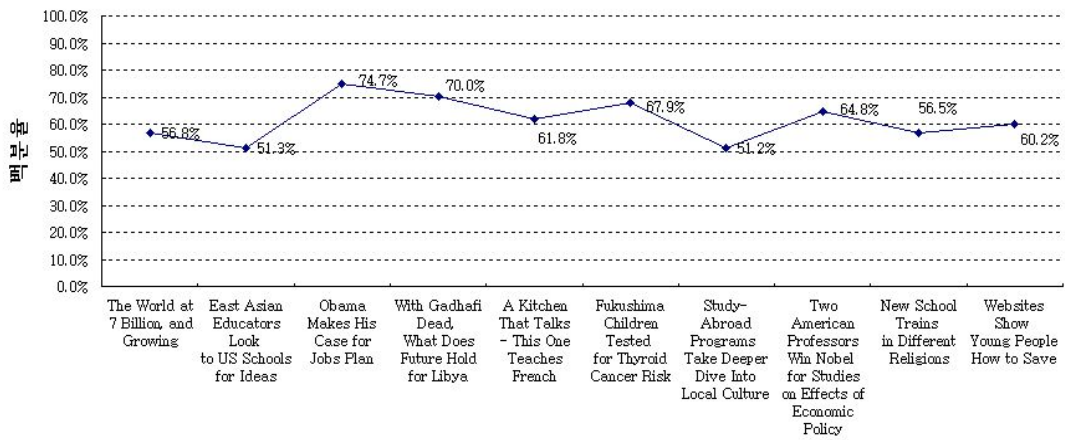
<그림 14>는 미국의 소리 자료에 대한 실험 수업 참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그림 14>에서 보듯이 “With Gadhafi Dead What Does Future Hold for Libya”와 “Fukushima Children Tested for Thyroid Cancer Risk”의 이해도가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 두 사건이 세계적으로 큰 사안이었기에 학생들도 이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어졌으며, 그로 인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15> 미국의 소리 자료 내용흥미도



<그림 15>는 미국의 소리 자료에 대한 실험 참여자들의 내용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With Gadhafi Dead What Does Future Hold for Libya”가 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Fukushima Children Tested for Thyroid Cancer Risk”는 3.1로 그 다음이었다. 실험 수업 시 학생들은 ‘Gadhafi’, ‘Fukushima’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많은 흥미를 나타냈다. 이것은 이 두 사건에 대한 이해도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실험 참여자들이 이 정보에 노출에 의한 영향이라 하겠다.

<그림 16> 미국의 소리 빈칸 채우기 과제 채점도



<그림 16>은 미국의 소리 자료에 대한 빈칸 채우기 과제 채점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위에서 보듯이 “Obama Makes His Case for Jobs Plan”이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With Gadhafi Dead What Does Future Hold For Libya”가 70.0%로 나타났다. 이해도와 흥미도가 높았던 이 사건이 빈칸 채우기 점수가 낮았던 이유 중 하나는 ‘Gadhafi’에 관한 기사 내용 중에 나온 인터뷰 대상자 때문이라 하겠다. ‘Obama’와 관련된 기사 중에는 2명의 영어권 화자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Gadhafi’와 관련된 기사 중에는 4명의 인터뷰 대상이 있으며, 이들은 리비아, 나이지리아, 우간다 그리고 영어권 화자이다. 실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리비아, 나이지리아, 우간다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을 때에 “발음이 이상해서 안 들린다.”, “발음이 웃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영어 발음을 듣는 경우, 다른 학생의 발음을 듣는 경우에도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는 학생들이 영어권 화자의 영어에만 익숙해져 있으며 세계인의 영어에 대한 노출 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에게 세계인의 영어를 들을 수 있는 지속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면 학습자들은 본인이 하는 영어 발음이 “틀렸다”기 보다는 “다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자신의 영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V. 연구 결과 분석

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표 7>과 같다.

<표 7> 연구 절차

순서	내용	목적
1	사전 설문 조사	학생들의 영어 듣기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듣기 저해 요인, 교재에 대한 흥미도 검사
2	사전 평가 - 2010년 대학수학능력 외국어영역 듣기 평가	사전의 객관적인 듣기 능력 검사
3	총 10회 수업 -. 미국의 소리 자료 10개 -. 듣기 저해 요인에 대한 교육(약 5~10분)	-. 실제적 자료를 통한 학생들의 흥미 유도 -. 듣기 저해 요인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듣기의 저해 요인을 감소 & 듣기 이해 능력 향상
4	사후 설문 조사	학생들의 영어 듣기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듣기의 저해요인, 실제적 학습 자료에 대한 흥미도 검사
5	사후 평가 - 2011년 대학수학능력 외국어영역 듣기 평가	사후의 객관적인 듣기 능력을 검사

우선, 실제적 자료와 듣기 저해 요인 병행 교육을 통한 실험을 실행하기 전 사전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듣기 저해 요인 교육 유무 및 형태, 학습자 본인이 생각하는 듣기 저해 요인, 교재에 대한 흥미도, 학

습자가 선호하는 교재, 듣기 교육이 발화와 연관되는지에 대한 생각에 대해 질문 하였다. 그리고 2010년 대학수학능력 외국어영역 듣기 평가를 이용하여 실험 수업 전 학습자들의 객관적인 듣기 이해능력을 확인하였다. 그 이후 미국의 소리 자료와 듣기 저해 요인 교육을 병행한 총 10회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10회의 수업은 <표 8>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8> 수업 지도안

단계 및 대상	내 용
pre-listening T ²⁵⁾ <->Ss	- 자료의 제목을 알려준 후 brain storming ²⁶⁾ - 기대되는 어휘 추출
while-listening S<->S Ss<->Ss T<->Ss	- 총 내용을 듣기(whole listening). - 들은 내용을 이용한 전반적인 내용, 어휘 정보 교환 - note-taking 단락별 내용을 들으면서 중요내용 요점 적기 정리되어진 내용을 보면서 Q&A(English : Korean = 50 : 50).
post-listening T<->Ss	- 빠른 속도로 다시 한 번 듣기 - 내용 요약(English : Korean = 50: 50). - 듣기 저해 요인 교육(5분~10분 소요)
homework Ss	- 수업 중 추출되어진 단어 암기 - 빈칸 채우기 수업 중 사용한 자료의 빈칸 채우기 자료 배부 (수업 1회차 부터 배부) - 빈칸 채워서 오기 빈칸 채우기 한 내용을 채점하고 틀린 부분 파악(답지 배부) (수업 2회차 부터 배부)

이러한 수업을 총10회 진행한 후 사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듣기 저해 요인 교육의 필요 유무, 듣기 저해 요인 교

25) T: Teacher, S: Student, Ss: Students,

26) Brainstorming: Brainstorming is a group creativity technique by which a group tries to find a solution for a specific problem by gathering a list of ideas spontaneously contributed by its members.(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Brainstorming>).

육 중 가장 도움이 된 부분, 미국의 소리 자료에 대한 흥미도, 장점,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2011년도 대학수학능력 외국어영역 듣기 평가를 이용하여 10차수 실험 수업 이후의 학습자들의 객관적인 성적을 측정하였다.

2. 연구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미국의 소리 자료와 듣기 저해 요인 교육 병행 실험 수업 전과 후에 조사한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학습자들의 듣기에 임하는 태도 변화와 평가 시험을 통해 나타난 참여자들의 점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설문지 내용 중에는 실험 수업 전·후 공통된 부분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기에 사전 설문 내용 분석, 사전·사후 설문 내용 비교 분석, 사후 설문 내용 분석으로 나누었다.

설문지에 나온 용어에 대해 학습자들의 인지가 낮을 수 있기에 한 문제씩 설명을 보태어 함께 진행하였다.

1) 사전 설문 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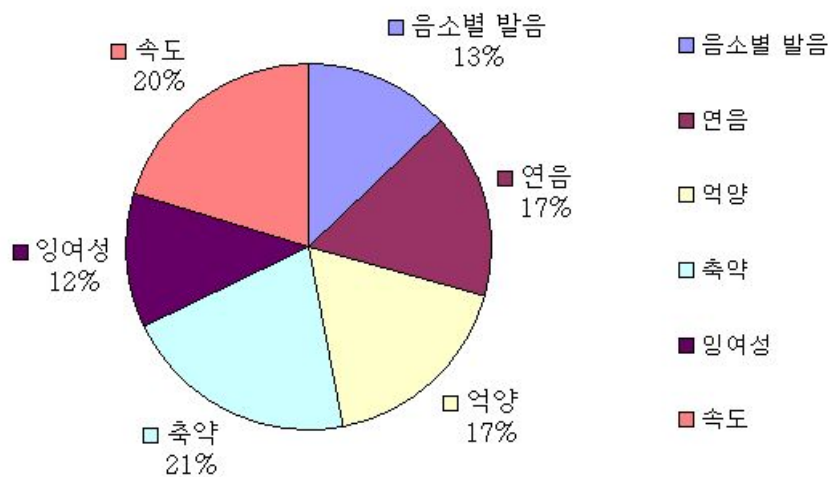
실험 수업 전 학생들의 듣기 저해 요인에 대한 교육 유무와 형태, 학습자 입장에서의 듣기 저해 요인 및 학습자가 선호하는 교재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다음의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림 17> 듣기 저해 요인 교육 유무



학습자들의 듣기 저해 요인 교육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영어 듣기 저해 요인 (음소별 발음, 연음, 억양, 축약, 잉여성, 속도)을 해소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66%(19명)의 학생은 ‘그렇지 않다’ 34%(10명)의 학생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들은 모두 어린 시절에 발음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정확한 기간은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학습하였다고 답하였다. 발음 교육의 형태는 선생님이 발음하는 음소를 보고 들은 후 따라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면, 교사들이 /p/-/p/-/p/-park, /f/-/f/-/f/-foot을 한 후 학습자들은 이를 따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도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발음을 가르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며, 이는 교사들의 정확한 발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 수업 참여자들은 음소별 발음은 어느 정도 어릴 때 습득하지만 이 음소들로 만들어진 단어들이 문장에서 발음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습한 경험이 없기에 이에서 어려움을 표출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을 연령별, 수준별로 나누어 음소별, 단어별, 문장 내에서의 단어의 발음 변화, 강세, 억양, 연음, 축약 등에 대한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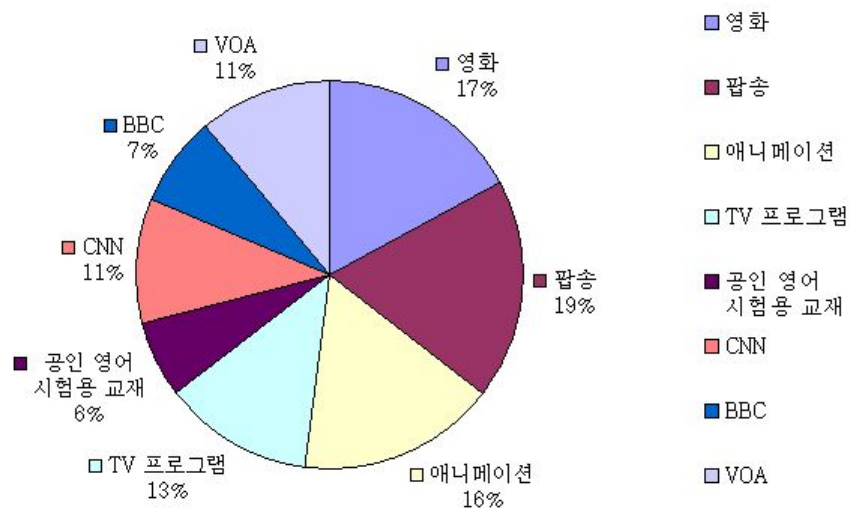
<그림 18> 학습자 입장에서의 듣기 저해 요인



학습자가 느끼는 듣기의 저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어 듣기 학습을 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에 대한 보기로는 음소별 발음, 연습, 억양, 축약, 잉여성, 속도를 선택항목으로 주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점을 6으로 하여 6에서 1까지 나열하도록 하였다. 학습자가 느끼는 듣기 저해 요인을 6점 척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는 <그림 18>과 같다.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 중 축약이 21%로 가장 높았으며, 속도 20%, 연습 17%, 억양 17%, 음소별 발음 13%, 잉여성 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제된 학습 자료는 정중한 표현을 주로 사용하기에 축약된 표현이 많이 나타나지 않으며 구어에서 많이 쓰이는 축약 현상에 대한 교사의 교육 또한 적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자주 발생하는 축약 현상 설명, 문장 내에서 일어나는 연습 현상, 억양에 따른 의미 변화에 대한 중요성, 음소별 발음에 따른 의미 차이, 여러 가지 잉여적 표현을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꾸준히 가르친다면 학습자들이 느끼는 듣기 저해 요인은 감소되리라 본다. 또한 속도로 인해 듣기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들에게는 교사가 적절한 속도를 제시하여 학습하게 한 후 단계적으로 듣기 속도를 높인다면 이 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본다.

<그림 19> 학습자가 선호하는 교재



영어를 목표어로 하는 학습자의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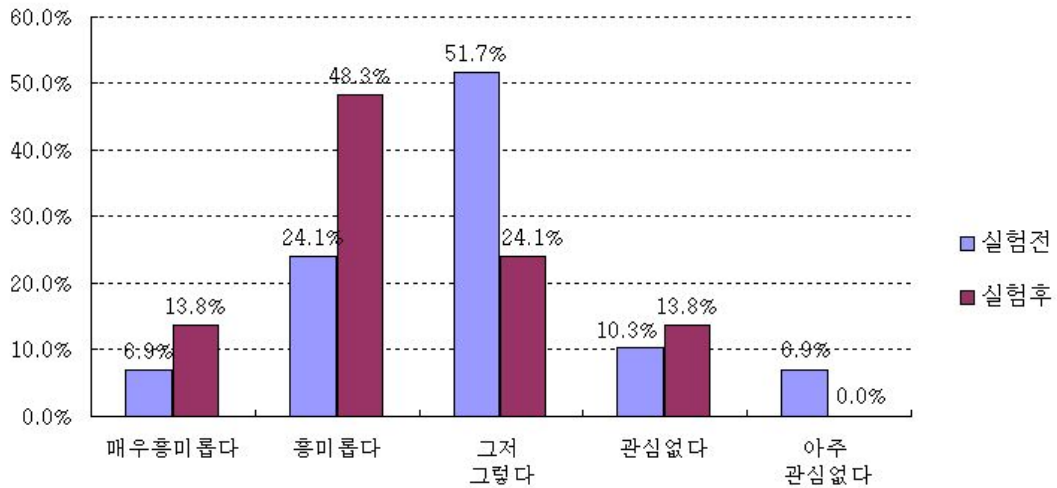
미도를 유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흥미도를 유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흥미로운 교재일 것이라 생각하고 학습자가 원하는 교재는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하여 ‘영어 듣기 수업용 교재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을 사용하고 싶은지 선호도를 번호로 나열하십시오.’라고 물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영화, 팝송,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 공인 영어 시험용 교재, CNN, BBC, VOA 8개의 항목을 넣었으며 학습자 본인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타라는 항목도 추가하였다. 하지만 실험자 중에는 ‘기타’란에 추가 항목을 쓴 학생은 없었다. 학습자가 선호하는 교재에 대한 결과는 <그림 19>와 같이 나타났다. 팝송(19%), 영화(17%), 애니메이션(16%), TV 프로그램(13%), CNN(11%), VOA(11%), BBC(7%) 그리고 공인 영어 시험용 교재(6%) 순서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시험용 교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한국 학습자들이 ‘시험’이라는 자체에 지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CNN, VOA, BBC에 대한 흥미도가 낮은 것은 뉴스라는 점에서 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 중 BBC는 학습자들이 많이 접하는 미국식 영어가 아닌 영국식이기에 거부감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VOA²⁷⁾는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것인지 설명은 했으나 CNN 만큼 큰 인지도가 없기에 좀 더 낮은 선호도를 보인듯하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팝송, 영화,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흥미도를 들어냈지만, 이러한 자료를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료들의 내용이 흥미로운 만큼 자극성 높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자극성이 배제된 자료를 꾸준히 찾고 수업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접했던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기에 그에 따른 흥미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에 비해 미국의 소리 자료는 뉴스인 만큼 매일 새로운 정보가 다양한 주제로 나뉘어 제공된다. 이를 이용한다면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 이해능력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 제공을 통해 예술, 오락, 교육,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상식 또한 증가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미국의 소리 자료의 장점인 기사 내용 및 음성파일의 제공으로 인해, 교사는 자료를 찾는 시간을 줄이고 수업 지도 방법에 대한 시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27) 실험 수업에 사용한 자료인 미국의 소리를 줄여서 VOA(Voice of America)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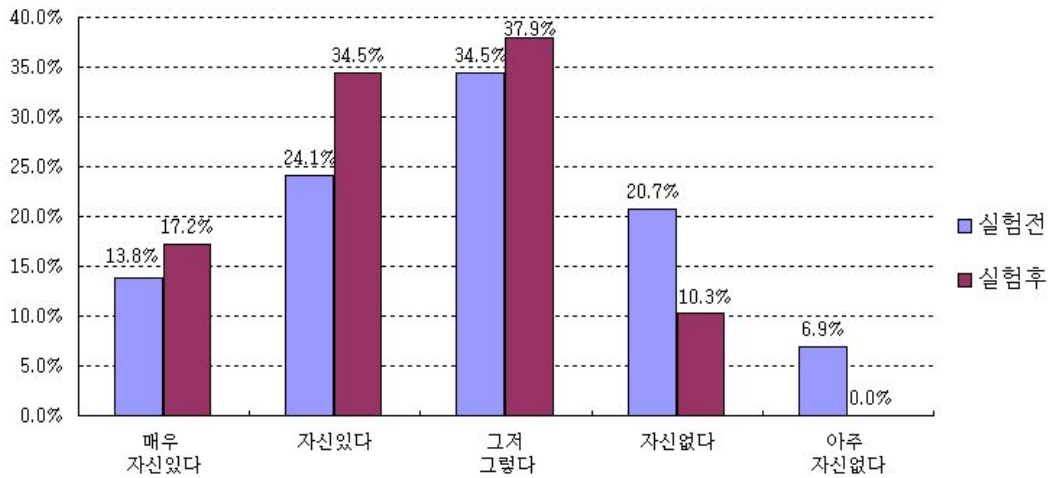
2) 사전·사후 설문 내용 비교 분석

<그림 20> 듣기 학습에 대한 흥미도



듣기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어 듣기 학습의 흥미도는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실험 수업 후에 듣기에 대한 흥미도는 ‘매우 흥미롭다’는 6.9% 증가, ‘흥미롭다’는 24.2% 증가, ‘그저 그렇다’는 27.6% 감소, ‘관심없다’가 3.5% 증가 그리고 ‘아주 관심없다’는 6.9% 감소하였다. ‘관심없다’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유로 ‘내용이 본인과 관련이 없다.’, ‘내용이 어렵다.’ 라고 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학습자에 따른 주제 선정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전체적인 흥미도는 증가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험 수업에 사용하였던 실제적 자료로 사용한 미국의 소리 자료 및 듣기 저해 요인 교육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듣기에 대한 자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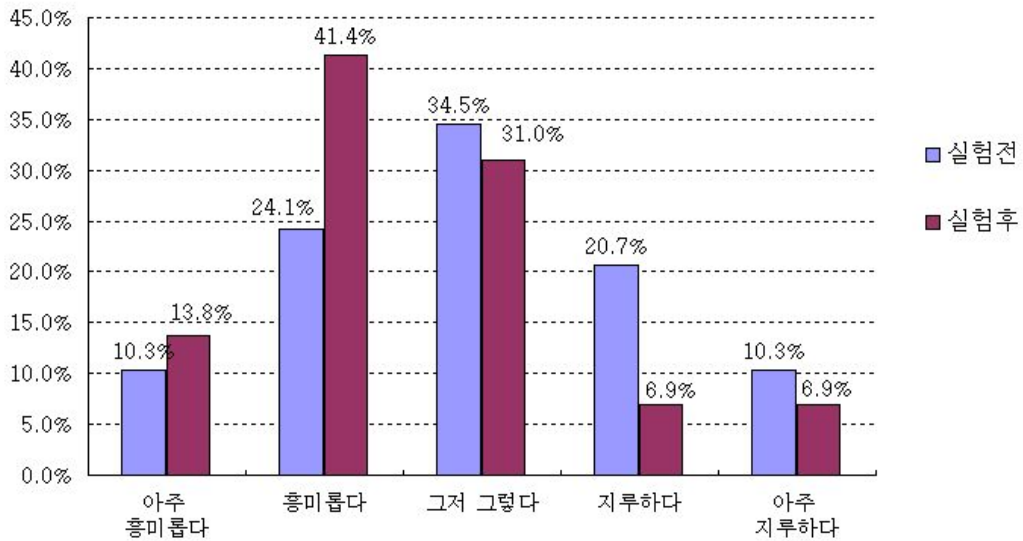
듣기에 대한 실험 수업 참여 학생들의 자신감 측정을 위하여 ‘영어 듣기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하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매우 자신있다’는 13.8%에서 17.2%로 3.4% 증가, ‘자신있다’는 24.1%에서 34.5%로 10.4% 증가, ‘그저 그렇다’는 34.5%에서 37.9%로 3.4% 증가, ‘자신없다’는 20.7%에서 10.3%로 10.4% 감소, ‘아주 자신없다’는 6.9%에서 0.0%로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없다’와 ‘아주 자신없다’에서 감소한 17.3%는 ‘매우 자신있다’, ‘자신있다’, ‘그저 그렇다’로 분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실험 전에 듣기에 자신없어하던 학습자들이 실험 후 자신감이 조금씩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험 수업 전에 비해 자신감이 상승한 학생들은 듣기 저해 요인 교육 중 음소별 발음, 연습과 축약에 대한 부분이 듣기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으며 그로 인해 자신감도 상승하였다고 한다.

<그림 22> 듣기 저해 요인 교육의 필요 유무



듣기 저해 요인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된 실험 후 학습자가 느끼는 듣기 저해 요인 교육의 필요 유무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 듣기 저해 요인(음소별 발음, 연음, 축약, 잉여성, 속도)을 해소시키기 위한 교육이 듣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렇다’는 72.4%에서 96.6%로 24.2% 증가, ‘그렇지 않다’는 27.6%에서 3.4%로 24.2% 감소되었다. 실험 수업 전에도 학습자들은 듣기 저해 요인에 대한 교육에 대해 높은 호응도를 보였으며 실험 수업 이후에는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실험 수업 참여 학습자들이 듣기 저해 요인 교육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보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 듣기 교재에 대한 흥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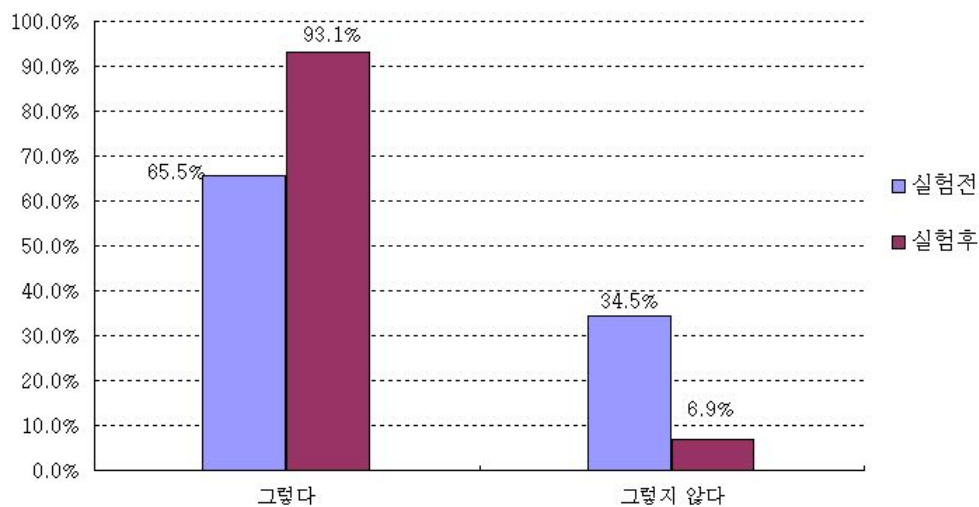


이 실험에 참여한 학생 29명이 실험 수업에 참여하기 전 9개월 간 이용했던 교재는 N어학원의 교재부에서 제작한 자료로서 2가지 유형이었다. 한 가지는 3분 30초 정도의 독백(monologue)을 듣고 주어진 6개의 문제를 푸는 형태이다. 이것은 독백내용에 대해 요약 정보를 적을 수 있는 부분과 본문의 내용을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역 듣기평가와 같은 형태로 남녀 간의 대화, 짧은 독백 등을 듣고 그에 따른 문제를 푸는 형태였다. 문제의 개수는 대략 11개에서 13개 정도였다. 또한, 본문 내용을 받아 쓸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자료와 실제적 자료로 사용한 미국의 소리에 대한 흥미도를 비교하기 위해 사전 질문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어 교재에 대한 흥미도는 어떠합니까?’와 사후 질문 ‘영어 교재로 사용한 VOA 자료에 대한 흥미도는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매우 흥미롭다’는 10.3%에서 13.8%로 3.5% 증가, ‘흥미롭다’는 24.1%에서 41.4%로 17.3% 증가, ‘그저 그렇다’는 34.5%에서 31.0%로 3.5% 감소, ‘지루하다’는 20.7%에서 6.9%로 13.8% 감소 그리고 ‘아주 지루하다’는 10.3%에서 6.9%로 3.4%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교재에 흥미도가 낮았던 학생들의 수가 줄고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적 자료로 제공된 미국

의 소리 자료가 매번 새로운 내용이었으며 이 중 일부 자료는 뉴스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사건이었기에 흥미도가 높았으리라 본다. 또한, 학생들은 본인이 들어본 ‘Obama’, ‘Gadhafi’와 같은 유명인의 이름 또는 ‘Fukushima’, ‘Libya’와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난 지명이 나왔을 경우 더욱 높은 흥미도를 나타냈다.

<그림 24> 발화까지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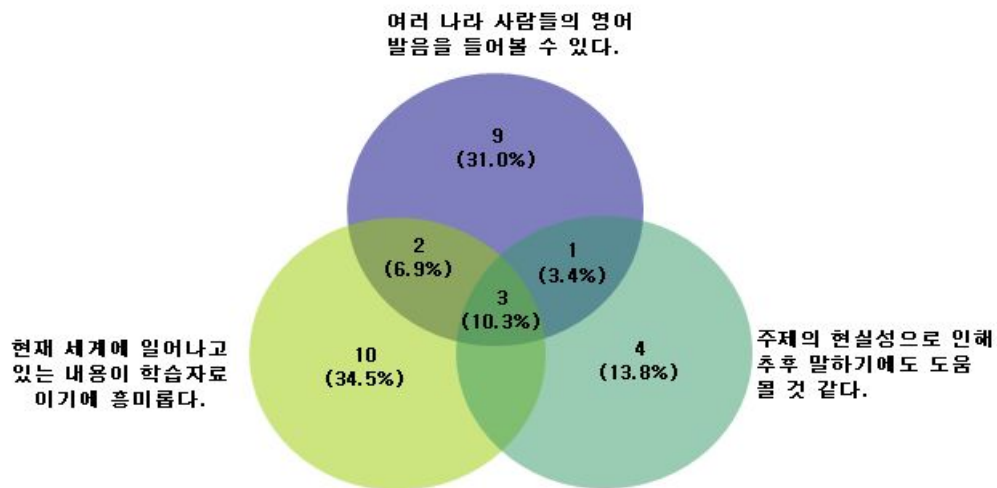


미국의 소리 자료를 통한 의사소통의 주제 생성, 듣기 저해 요인 교육을 통한 음소별 발음, 강세, 억양, 연습, 축약 현상에 대한 자신감을 상승이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수업 전·후에 ‘영어 듣기 학습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꾸준히 공부한다면 실제 외국인과의 대화를 할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렇다’는 65.6%에서 93.1%로 27.5% 증가, ‘그렇지 않다’는 34.5%에서 6.9%로 27.6% 감소되었다. 즉, 실험 수업 후 듣기 수업이 발화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화까지의 연관성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항상 영어권 원어민의 발음에만 노출되어 그러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생긴 발화의 두려움이 미국의 소리 자료 내용 중 포함된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세계인의 영어에 노출되

어 얻게 된 자신감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리 자료 “With Gadhafi Dead, What Does Future Hold for Libya” 중 Libya 여성의 인터뷰 내용을 들을 때 학생 대부분은 이 여성의 발음에 대해 웃으며 이상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내용 파악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 했다. 이것은 학생 대부분이 미국식, 영국식 영어 발음만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하며 학습한데서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영어란 영어권 사람만의 언어가 아니며 세계인의 언어라는 것과 그만큼 수없이 많은 다른 형태의 발음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3) 사후 설문 내용 분석

<그림 25> 미국의 소리 자료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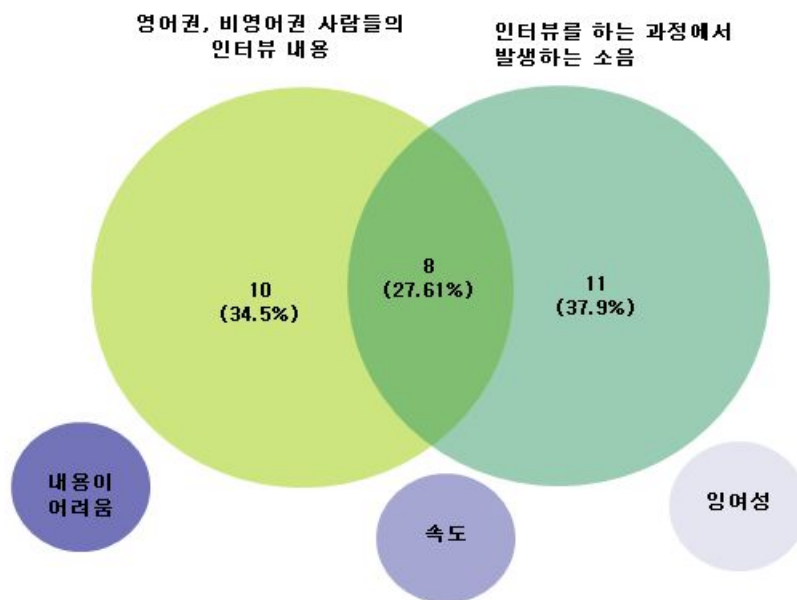


새로운 듣기 수업 자료로 사용한 미국의 소리 자료에 대해 학습자들이 느끼는 긍정적인 면을 알아보기 위해 “VOA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세 항목, ①‘여러 나라 사람들의 영어 발음을 들어볼 수 있다.’, ②‘현재 세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내용이 학습자료이기에 내용이 흥미롭다.’ 그리고 ③‘현실적인 학습 주제로 인해서 후에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항목을 주어 다중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추

가로 적을 수 있는 ‘기타’란을 주었다. ‘기타’란에 추가 의견을 적은 학생은 없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장점으로써 ①을 선택한 학생은 31.0%(9명), ②는 34.5%(10명), ③은 13.8%(4명)로 나타났으며, ①과 ②를 모두 선택한 사람은 6.9%(2명), ①와 ③은 3.4%(1명)이며 ①,②,③을 모두 선택한 학생은 10.3%(3명)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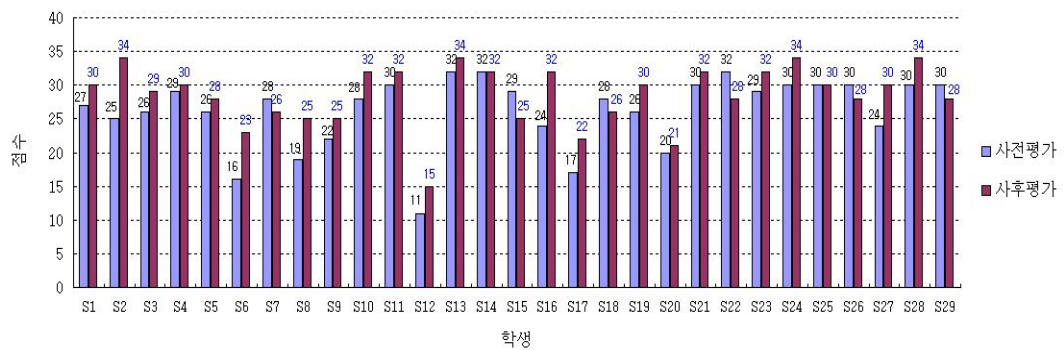
<그림 26> 미국의 소리 자료를 이용한 학습시 어려운 점



미국의 소리 자료를 이용한 학습 시 어려운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VOA를 이용한 학습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떠한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기본 항목으로 ① 영어권, 비영어권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 ②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는 항목을 제공하였으며, 이 두 가지 사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학습자가 느끼는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다면 ‘기타’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실험 수업 참여 학생들이 느낀 미국의 소리 자료에 대한 어려운 점으로 ①을 선택한 학생은 34.5%(10명)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듣기 교재들이 영어 발음이 또렷한 영어권 원어민의 발음만으로 이루어진 교재에서 벗어나 실제 인

터뷰 내용을 통해 리비아,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의 영어 발음을 처음 경험한데서 온 현상이라 하겠다. ②를 선택한 학생은 37.9%(11명)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듣기 교재와 함께 제공되는 음성 파일들이 소음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녹음을 위한 녹음실에서 생성된 자료이며 이러한 자료에만 노출되어진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한다. 이에 비해, 실제 생활에서는 환경 소음이 있는 가운데에서 서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므로 학습자들이 가끔씩은 듣기 학습에 어느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실제 대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기타’ 의견으로는 ‘내용이 어려움’, ‘속도가 빠름’, ‘영어적 표현’에 의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힘들었다고 한다.

<그림 27> 실험 수업 참여 학생들의 사전·사후 평가의 점수 비교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S13	S14	S15	S16	S17	S18	S19	S20	S21	S22	S23	S24	S25	S26	S27	S28	S29	AVG
사전평가	27	25	26	29	26	16	28	19	22	28	30	11	32	32	29	24	17	28	26	20	30	32	29	30	30	30	24	30	30	26.2
사후평가	30	34	29	30	28	23	26	25	25	32	32	15	34	32	25	32	22	26	30	21	32	28	32	34	30	28	30	34	28	28.5
점수차	3	9	3	1	2	7	-2	6	3	4	2	4	2	0	-4	8	5	-2	4	1	2	-4	3	4	0	-2	6	4	-2	2.3

사전·사후 평가는 2010,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의 듣기평가 17문항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34점이 만점이다. <그림 27>에 있는 학생들의 사전·사후 평가의 점수 차이를 보면 실험 후 71.4%(21명)의 학생 점수가 실험 전에 비해서 상승, 20.7%(6명)의 점수가 하락하였으며 6.9%(2명)의 학생 점수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평균은 26.2에서 28.5로 2.3 증가하였으며 평균 점수를 넘은 학생은 사전 평가에서는 16명, 사후 평가에서는 19명으로 3명이 증가 하였다.

이는 실제적 자료로 이용한 미국의 소리 자료와 듣기 저해 요인에 대한 교육을 병행한 듣기 수업이 의사소통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듣기 이해능력의 향상에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실제적 자료를 이용한 듣기 교육이 EFL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주도 제주시내 N 어학원에 다니는 중학생 1, 2학년 29명을 대상으로 총 10회(각 55분)의 실험 수업을 실시하였다. 실험 수업에는 미국의 소리 자료 10개를 추출하여 실제적 자료로 사용하고, 본 논문에서 구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듣기의 저해 요인에 대한 교육 자료를 생성하여 실험 수업 중 병행하였다. 실험 전·후의 학생들의 듣기 이해능력이 수치상 변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평가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영어 듣기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등의 변화에 대해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사전·사후 평가 시험과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 결과 분석 결과는 앞서 세운 가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첫째, 실험 수업 전·후로 수행한 듣기 저해 요인 교육에 대한 필요 유무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72.4%에서 96.6%로 24.2% 증가하였다. 이것은 실험 수업 전에 듣기 저해 요인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학생들에게 수업 중 병행된 한국인이 취약한 분절음, 초분절음에 관한 수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며 학습자 스스로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과서와 시험용 교재 등과 같은 정제된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하던 학생들이 미국의 소리 자료를 접한 이후의 교재에 흥미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아주 흥미롭다’ 3.5% 증가, ‘흥미롭다’ 17.3% 증가, ‘그저 그렇다’ 3.5% 감소, ‘지루하다’ 13.8% 감소, ‘아주 지루하다’ 3.4% 감소로 나타났다. 이 수치 정보에서 보듯이 학생들이 실제적 자료로 이용한 미국의 소리 자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루하다’, ‘아주 지루하다’의 의견을 내놓은 학생의 경우에는 자료의 내용이 이해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영어 듣기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도 역시 ‘매우 흥미롭다’ 6.9% 증가, ‘흥미롭다’ 24.1% 증가, ‘그

저 그렇다’ 27.6% 감소, ‘관심없다’ 3.4% 증가, ‘아주 관심없다’ 6.9% 감소하였다. ‘관심없다’의 수치가 3.4% 증가하였지만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흥미도는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수준별, 연령에 따른 올바른 실제적 자료는 학습자들의 듣기에 대한 흥미도, 교재에 대한 흥미도 모두 상승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기존의 정제된 학습 자료의 음성파일들은 발음이 비교적 좋은 원어민이 녹음을 위한 특수한 공간에서 녹음을 함으로서 실제 의사소통 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환경소음이 제외되어있다. 하지만 실제적 자료로 사용한 미국의 소리 자료에 포함된 인터뷰는 영어권, 비영어권 사람들이 정해진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변인 요소들과 잉여적 표현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러한 것을 처음 접한 학생은 비영어권 사람들의 영어발음, 환경소음으로 인한 듣기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사전·사후 설문지를 비교한 결과 듣기에 대한 자신감은 ‘매우 자신있다’ 3.4% 증가, ‘자신있다’ 10.4% 증가, ‘그저 그렇다’ 3.4% 증가, ‘자신없다’ 10.4% 감소, ‘아주 자신없다’ 6.9% 감소한 것으로 보아 듣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감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어권의 화자들의 발화 내용만을 듣던 학생들이 영어란 세계의 언어이며 자신들이 발화시 나타나는 발음이나 수행변인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실험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영어 자체에 대해 자신감이 상승한 학생들은 자신의 영어 발음에도 자신을 갖고 발화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생들을 영어권 화자의 영어뿐 아니라 세계인의 영어에 노출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실제적 자료로 사용한 미국의 소리 자료와 듣기 저해 요인 교육을 병행한 것이 학습자의 실질적인 점수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은 26.2에서 28.5로 2.3 상승, 평균을 넘는 학생의 수는 55.2%(16명)에서 65.5%(19명)로 10.3%(3명) 상승하였다. 이는 즉, 실제적 자료와 듣기 저해 요인 교육이 듣기 이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자들 스스로 듣기 저해 요인에 대한 학습을 절실히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의 소리 자료에 대한 흥미도는 주어진 주제에 따

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어 듣기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역시 증가하였다. 그리고 실험 전·후의 듣기 평가 시험을 통해 학습자의 실질적인 듣기 성적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실제적 자료를 통한 수업을 계속 받는다면 듣기 능력 향상뿐만이 아닌 실제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험에 참여한 대상은 29명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실험 수업 기간은 10차수로 제한되어져 있었다. 또한, 실제적 자료는 미국의 소리 자료로 한정되어져 있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여 실험 대상을 확대하고 실험 대상에 맞는 실제적 자료와 듣기 저해 요인에 대한 자료를 다양화 한다면 보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고 신빙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자료를 미국의 소리 자료로 실험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중학교 1,2학년 29명으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실제적 자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수없이 많이 존재하며 학습자들은 연령, 수준, 지역, 성별 등에 따라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CNN, BBC, AP, TED, 애니메이션, 유튜브, 팝송 등의 실제적 자료들을 학습자의 연령, 수준, 지역, 성별 등에 따라 다양화 시킨 후 그에 따른 학습자들의 이해도, 흥미도를 꾸준히 조사하고 각 관점에 맞는 실제적 자료를 찾는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총 10회의 짧은 수업 중의 듣기 저해 요인에 관한 수업이었지만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듣기 이해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교육을 학습자의 이해도에 맞추어 어떠한 자료와 설명 방식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준별 듣기 저해 요인 교육 자료를 생성하여 이용한다면 듣기 이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더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학습자들에게 영어를 학습하는 최종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TOEIC, TOEFL, NEAT 등 어학시험 교재 또는 교과목을 위해 만들어진 정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시험을 위한 영어를 학습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언어의 궁극적 목표인 의사소통을 중시하면서, 아직도 교과서를 가지고 문법, 독

해 위주의 수업을 하고 그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자는 학교에서의 영어 수업과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학습을 별개로 인식하며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을 상실하고 공포심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목적이 시험이 아닌 의사소통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므로 영어를 대하는 학습자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4].
- 권영환 & 김항아. (2009).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듣기 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영상영어교육학회. *STEM Journal* 10(2)권.
- 권오량. (1998). 이해 기능 연구들이 시사하는 영어 듣기,읽기 지도법. 글로벌영어교육학회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Vol. 3, No.1.
- 권지혜. (2007). 영어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팝송의 활용방안.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규. (2007). 기본적인 영어 음운현상 숙지가 EFL 학습자들의 영어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상영어교육학회 *STEM Journal* 8(2).
- 김동규. (2008). 실제적 영어 듣기 및 읽기 자료가 EFL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11(1), 61-84.
- 김일승. (2009). VOA News 쉽게듣기-발음적응편. 다락원.
- 김진희. (2003). 영어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애니메이션 활용 교수법-자연교수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영미문화연구소 영미문화 Vol 9.
- 김형수 & 정인철. (2003). 영어 전용 수업의 실태:초등영어 듣기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글로벌영어교육학회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Vol, 8, No.1.
- 도영미. (2010). 유튜브(YouTube)의 실제적 자료를 통한 영어 청취력 향상-어휘 분절 받아쓰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한샘. (2007). 실제 뉴스 듣기를 통한 고2영어 듣기 능력의 향상 - 듣기 자료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가연. (2008). Dictogloss 교수법이 영어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란. (2006). 초등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애니메이션 영화를 중심으로. 영상영어교육학회 *STEM Journal* 7(1)권.

- 변명섭. (1986). 영어학습자의 오류분석.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2집(인문편). 255-275.
- 성일호. (2003). 실제적 자료(Authentic Materials)를 활용한 영어학습 동기 향상 방안. 대한영어영문학회 영어영문학연구 제29권 제1호 221-240.
- 신명숙 & 이화자. (2004). 팝송을 활용한 영어 듣기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팝송의 시대적 구분 중심으로.
- 신은정. (2005). 영어 뉴스 듣기 교재를 활용한 듣기 웹사이트 설계.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영어교재개발학과 석사학위논문.
- 안수용. (1995). 영어 청해력 저해 요인의 정보처리이론적 분석. 한국영어교육학회 영어교육 50권 2호.
- 안인숙. (2005). 애니메이션 영화를 이용한 초등학생의 영어 듣기 능력 향상 방안. 영상영어 교육학회 *STEM Journal* 6(1)권.
- 안화현. (2007). 한국인이 취약한 영어발음에 관한 실험에 기초한 영어듣기 능력 향상 방안.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희진 & 정동빈. (2011). 미국 드라마를 활용한 지도가 대학생들의 영어듣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영상영어교육학회 *STEM Journal* 12(1).
- 오경은 & Rick K. (2005). 미국 영어발음 무작정 따라하기 종합편. 길벗이지톡.
- 이기석. (1997). 조기영어학습에 대한 음성학적 접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 3집 333-347.
- 정은주. (2006).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의 듣기과업 분석 연구. 글로벌영어교육학회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Vol. 11, No.2.
- 조명순 & 정행. (2003). 실용자료를 활용한 초등영어 읽기지도. 글로벌영어교육학회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Vol 8, No2.
- 차경환. (2005). 영어교육 학술지에 실린 듣기 논문의 역사적 검토. 한국영어교육학회 영어교육 60권 2호.
- 하지영. (2003). 실제 자료 사용을 통한 고3 영어 듣기 능력 향상 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홍기천 & 남은아. (2006). 영화자료를 활용한 초등학교 5학년의 실제적인 교과 수업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Vol6, No8. 68-77.

- Asher, J., Kusudo, J., & Torre, R. (1974). Learning a second language through commands. *Modern Language Journal*, 58, pp. 24-32.
- Boyle, J.P. 1984. Factors affecting listening comprehension, *ELT Journal*, 38, 34-44.
- Brown, H.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ew York: Long man, Inc.
- Celce-Murcia, M., Brinton, D. M., & Goodwin, J. M. (1996). *Teaching Pronunciation: A Reference for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ok, Ann. (2000). *American accent training: a guide to speaking and pronouncing American English for every who speaks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Barron's.
- Littlewood, W. (1981).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sa, M. (2009). *Mastering the American Accent*. Barron's Education Series.
- Morrison B. (1989). Using news broadcasts for authentic listening comprehension. *ELT Journal*, 43(1), 14-18.
- Pamela Rogerson-Revell. (2011). *English Phonology and Pronunciation Teaching*: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 Group Ltd.
- Peacock, M. (1997). The effect of authentic materials on the motivation of EFL learners. *ELT Journal*, 51(2), 144-156.
- Prator, C.H., & B.W. Robinett. (1985).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4th ed.
- Richards, J. (1983). Listening Comprehension: Approach, design, procedure. *TESOL Quarterly*, 17, 219-238.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vers, W. M., & Temperly, M. S. (1978).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NY: Oxford University Press.

Rubin, J. (1994). A Review of Second Language Listening Comprehension Research.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8, 199-221.

Steven A. (2008). Authentic Videos in the Language Classroom.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영어교육연구 제37호* 49-67.

Widdowson, Henry G. (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honetics: The Sounds of American English, The University of Iowa, July. 2011 - December.2011,
<http://www.uiowa.edu/~acadtech/phonetics/english/frameset.html>.

ABSTRACT

The Educational Effects of Authentic Listening Materials on EFL Learners'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y

Jaehyun Kim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or: Prof. Myung-Sup Byu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educational effects of authentic listening materials on Korean EFL learners'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y.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utilizing English listening courses of 10 model classes. Subjects were 29 middle school students. They were taught English listening classes by using authentic materials, ten news articles from *Voice of America*. In addition, they were taught lessons regarding prospective impediments to Korean learners'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word stress, sentence stress, intonation, linking, and contraction. Questionnaires and tests were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model classes in order to identify changes in the affective and cognitive domains of the students.

Positive responses were apparent. The analysis of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confidence and interest in English listening were

increased and their average listening test scores improved.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one should consider the learners' levels and interests. In addition, learners should be classified, depending on a variety of perspectives, such as age, level, gender, and so on. Teachers should prepare various class materials for learners in English listening cla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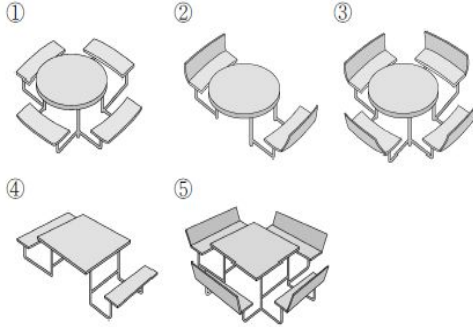
부 록

<부록 1> 사전 평가지.....	68
<부록 2> 사후 평가지.....	70
<부록 3> 사전 설문지.....	72
<부록 4> 사후 설문지.....	74
<부록 5> 미국의 소리 수업 자료.....	76
<부록 6> 미국의 소리 빈칸 채우기 자료.....	83

<부록 1> 사전 평가지

이름		성별	여 / 남
학교	학교	학년	학년

1.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주문할 야외용 식탁을 고르시오.



2.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frustrated ② jealous ③ indifferent
 ④ satisfied ⑤ grateful

3.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고르시오.

- ① 설사약 ② 멀미약 ③ 항생제
 ④ 소화제 ⑤ 구충제

4.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환영 표지판 만들기 ② 공항에 마중 나가기
 ③ 집에 친구 초대하기 ④ 자매 학교 방문하기
 ⑤ 시내 관광 시켜주기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3점]

- ① \$180 ② \$190 ③ \$220
 ④ \$250 ⑤ \$290

6.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새로 개관한 공연장을 홍보하려고
 ② 공연장 놀이방 운영을 공지하려고
 ③ 공연 장소 변경에 대해 사과하려고
 ④ 공연장 내 질서 유지를 당부하려고
 ⑤ 공연장 물품 보관소에 대해 안내하려고

7.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to replace the old bed with a new one
 ② to order a heater from the Internet
 ③ to set the room temperature higher
 ④ to buy an electric blanket
 ⑤ to go shopping together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 ① 학교 방송실 ② 신문사 편집실 ③ 광고사 기획실
 ④ 119 상황실 ⑤ 도서관 휴게실

9.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 ① 보안 요원 - 가수 ② 스티븐 맨 - 분장사
 ③ 운동선수 - 트레이너 ④ 영화감독 - 시나리오 작가
 ⑤ 건축 설계사 - 건물주

10.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마술 배우기 ② 노래 부르기
 ③ 새장 준비하기 ④ 마술 의상 빌려오기
 ⑤ 마술 클럽 가입하기

11.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공연을 관람하게 될 날짜를 고르시오.

Greenwood Theater					
Play & Special Program Schedule					
November					
	①	②	③	④	⑤
	11 (Wed.)	12 (Thu.)	13 (Fri.)	14 (Sat.)	15 (Sun.)
Pre-Show Talk			○	○	
Play	Macbeth	Othello	Macbeth	Othello	Macbeth
Post-Show Discussion	○	○			○

12. World Tea Championship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① 녹차를 포함하여 세 부문에서 경쟁이 이루어진다.
- ② 예선에서 15개국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경쟁했다.
- ③ 결선에서의 심사 기준은 색, 향, 맛이다.
- ④ 결선 심사는 이전 우승자들이 담당한다.
- ⑤ 결선 진출자들에게 Tea Master 칭호를 부여한다.

13.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1점]



- ① ② ③ ④ ⑤

14.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oman: _____

- ① I think so. My uncle likes the game, too.
- ② All right. I'll go to the website right now.
- ③ Not really. The package will arrive in time.
- ④ It's my fault. I wish I hadn't returned the game.
- ⑤ I agree. We shouldn't download games illegally.

15.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n: _____

- ① Well done! I'll buy you another monitor after work.
- ② Calm down. You can rewrite the report tomorrow.
- ③ That's incredible! The program is so easy to use.
- ④ Thanks for the tip. I'll go see if I can use it.
- ⑤ What a pity! I won't back it up next time.

16.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oman: _____

- ① Not at all. It's my pleasure to help you out.
- ② I'm afraid it's too late to make a reservation.
- ③ I think taking the train will be better for me.
- ④ It's OK. We'll get there in about half an hour.
- ⑤ I don't think so. I planned to meet my friend here.

17.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아버지가 Julie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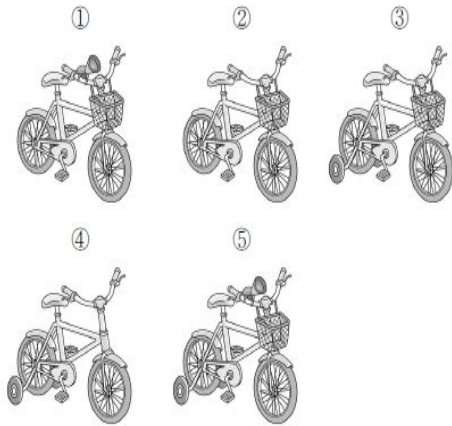
Julie's father: _____

- ① Be happy. At least you're healthy.
- ② Cheer up. Let's take it to another hospital.
- ③ I'm sorry. There's nothing we can do anyway.
- ④ That's too bad. I've always liked cats better anyway.
- ⑤ Don't worry. There are six other puppies to play with.

<부록 2> 사후 평가지

이름		성별	여 / 남
학교	학교	학년	학년

1.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자전거를 고르시오.



2. 대화를 듣고,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scared ② delighted ③ encouraged
④ annoyed ⑤ sympathetic

3.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연령에 따른 성격의 변화
② 나쁜 잠버릇을 고치는 방법
③ 타고난 기질이 안 바뀌는 이유
④ 수면 자세와 성격 간의 관련성
⑤ 혈액형과 성격 간의 연관 가능성

4.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세차 도와주기 ② 버스 기사에게 전화하기
③ 휴대전화 수리 맡기기 ④ 터미널 휴게실 청소하기
⑤ 차량 운행 시간 알려 주기

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문한 물건 값으로 한 달에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3점]

- ① \$ 60 ② \$ 120 ③ \$ 250 ④ \$ 360 ⑤ \$ 400

6.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음식물 보관 방법을 설명하려고
② 기금 마련 바자회를 홍보하려고
③ 학생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려고
④ 피자 파티의 일정 변경을 알리려고
⑤ 양로원 자원 봉사 활동을 안내하려고

7.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to repair his broken computer
② to install an ad blocking program
③ to place a pop-up ad on a website
④ to help him block spam text messages
⑤ to let him know the name of a program

8.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 ① 농구 경기장 ② 권투 시합장 ③ 빙상 경기장
④ 실내 수영장 ⑤ 육상 경기장

9.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 ① 은행 직원 — 고객
② 의사 — 간호사
③ 경찰관 — 보행자
④ 아파트 경비원 — 방문객
⑤ 매표소 직원 — 관람객

10.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꽃 사러 가기 ② 놀이공원 가기
③ 졸업식 참석하기 ④ 쇼핑물 구경하기
⑤ 전자사전 구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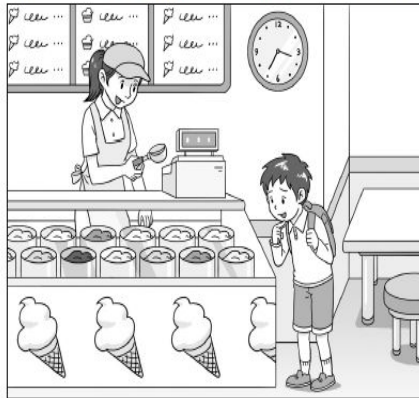
11.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방문할 박물관을 고르시오.

	Photography Permitted	Do-It-Yourself Activities	Admission Fee
① Natural History Museum	○	○	\$15
② Robot Museum	○	×	\$5
③ Modern Art Museum	×	○	\$9
④ Dinosaur Museum	○	○	\$8
⑤ Automobile Museum	○	○	\$13

12. The Walk of Harmony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① 4월 10일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 ②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이다.
- ③ 비가 올 경우에는 행사가 취소된다.
- ④ 8세 미만의 아동은 어른이 꼭 동반해야 한다.
- ⑤ 참가 신청서는 웹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13.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시오. [1점]



- ① ② ③ ④ ⑤

14.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n: _____

- ① I'm here to buy a suit for my concert.
- ② I'll tell you who's available by tomorrow.
- ③ I hope you're feeling better from the flu.
- ④ I think we should put on the show right now.
- ⑤ I want to thank you for finding a replacement.

15.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oman: _____

- ① I'm not interested in those club activities.
- ② This rock concert is sure to be a big success.
- ③ My dream is to be the world chess champion.
- ④ That's a great way to play musical instruments.
- ⑤ If you make them, I'll help you post them up.

16.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n: _____

- ① Don't fix what isn't broken.
- ② I'd move mountains for you.
- ③ It'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 ④ You can't please the whole world.
- ⑤ Time flies when you're having fun.

17.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Amy가 택시 기사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my: _____

- ① Could you let me off here?
- ② Does this taxi go to N Seoul Tower?
- ③ Is there a shortcut to Gyeongbokgung?
- ④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market?
- ⑤ Can you recommend a place to visit in Seoul?

<부록 3> 사전 설문지

이름		성별	여 / 남
학교	학교	학년	학년

1. 영어 듣기 학습의 흥미도는 어떠합니까?

매우 흥미롭다. 흥미롭다. 그저 그렇다. 관심없다. 아주 관심없다.

2. 영어 듣기에 대한 자신감을 어떠합니까?

매우 자신있다. 자신있다. 그저 그렇다. 자신없다. 아주 자신없다.

3. 영어 듣기 저해 요인(음소별 발음, 연음, 억양, 축약, 잉여성, 속도)을 해소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 “그렇다”인 경우 대략적인 교육기간 및 교육 형태를 적어주십시오.

e.g. 약 6개월 미만 발음, 억양...

4. 영어 듣기 저해 요인(음소별 발음, 연음, 축약, 잉여성, 속도)을 해소시키기 위한 교육이 듣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5. 영어 듣기 학습을 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6 -> 번호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6번으로 선택해주십시오.)

- 음소별 발음 : e.g. fool vs pool => /f/, /p/의 발음차이 구분.
- 연음 : e.g. give up: /기범/ 처럼 발음이 된다.
- 억양 : 원어민의 다양한 억양 표현으로 인해 내용 이해가 어렵다.

- 축약 : e.g. she is=she's, she has=she's, you would=you'd, etc.
- 잉여성(Redundancy) : e.g. I mean, You know, etc.
- 속도 : 원어민의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6.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어 교재에 대한 흥미도는 어떠합니까?

아주 흥미롭다. 흥미롭다. 그저 그렇다. 지루하다. 아주 지루하다.

이유 : _____

7. 영어 듣기 수업용 교재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을 사용하고 싶은지 선호도를 번호로 나열하십시오. (8개의 항목 이외의 학습하고자 하는 교재 유형이 있다면 '기타'란에 적으십시오.)

(1~8 : 8번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 영화 팝송 애니메이션
- TV 프로그램 : 예) CSI NY, CSI Miami, TOP CHEF, etc.
- 공인 영어 시험용 교재(TOSEL, PELT, TOFEL, etc.)
- CNN (Cable News Network) : 전 세계에 뉴스를 방송하는 미국의 방송사
- BBC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 영국의 공영 방송
- VOA(Voice of America) :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서 다른 뉴스에 비해 어휘의 수가 적고(수준은 낮지 않음) 말의 속도가 느린 편임
- 기타 _____

8. 영어 듣기 학습을 지금과 같은 시험용 교재 또는 교과서를 이용하여 공부한다면 실제 외국인과의 대화를 할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유 : _____

<부록 4> 사후 설문지

이름		성별	여 / 남
학교	학교	학년	학년

1. 영어 듣기 학습의 흥미도는 어떠합니까?
 매우 흥미롭다. 흥미롭다. 그저 그렇다. 관심없다. 아주 관심없다.

2. 영어 듣기에 대한 자신감을 어떠합니까?
 매우 자신있다. 자신있다. 그저 그렇다. 자신없다. 아주 자신없다.

3. 영어 듣기 저해 요인(발음, 강세, 축약, etc.)을 해소시키기 위한 교육이 듣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4. 영어 듣기 저해 요인(발음, 강세, 축약, etc.) 해소하기 위한 학습으로 인해 듣기 이해에 도움이 된 부분은 어떠한 것이라 생각합니까?
 음소별 발음 연음 억양 축약 잉여성(Redundancy) 속도

5. 영어 교재로 사용한 VOA 자료에 대한 흥미도는 어떠합니까?
 아주 흥미롭다. 흥미롭다. 그저 그렇다. 지루하다. 아주 지루하다.
 이유 : _____

6. VOA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복 선택 가능하며 추가 의견은 '기타'란에 적어주십시오.)
 여러 나라 사람들의 영어 발음을 들어볼 수 있다.
 학습자료가 현재 세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내용인 것이 흥미롭다.
 현재 주목 받고 있는 내용을 배움으로써 듣기 학습뿐만 아니라 후에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기타 _____

7. VOA를 이용한 학습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떠한 것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하며 추가 의견은 '기타'란에 적어주십시오.)

- 영어권이 아닌 나라의 사람의 인터뷰 내용
-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의 발생된 소음
- 기타 _____

8. 영어 듣기 학습을 듣기 저해 요인(발음, 강세, 축약, etc.) 해소를 위한 교육과 VOA와 같은 실제적 자료를 병행하여 공부한다면 실제 외국인과의 대화를 할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이유 : _____

<부록 5> 미국의 소리 자료

※참고사항: 미국의 소리 자료 중 실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내용이해도, 내용흥미도 및 빈칸 채우기 채점도가 높았던 3개의 기사만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1. Obama Makes His Case for Jobs Plan.



President Obama and his wife Michelle traveled to the states of North Carolina and Virginia this week. The Obamas were seeking support for the president's four hundred forty-seven billion dollar jobs plan.

The American Jobs Act calls for cutting wage taxes on most businesses. It seeks to prevent public employees like teachers, police and firefighters from losing their jobs to budget cutting measures. And it calls for more federal spending on roads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o help create jobs.

Last week, the Senate blocked a vote on the full bill.

On Sunday, the Majority Leader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aid some parts of the bill are like those in a plan put forward by the

Republican Party. Eric Cantor urged President Obama to find common ground with House Republicans.

ERIC CANTOR: "We want the president to work with us. We want him to stop campaigning. Let's go find the things that are in common between this plan and his."

Republicans in Congress offered their own plans to improve job growth earlier this year. They have called for cutting tax rates and limiting government rules on businesses.

Last week, Congress passed free trade deals with South Korea, Colombia and Panama. Both Mister Obama and Congressional Republicans agree the deals should create jobs at home and open markets to American exports.

United States trade officials say every billion dollars in new exports supports six thousand additional jobs. Last year, exports to South Korea alone stood at about thirty-nine billion dollars. President Obama signs the trade agreements into law Friday.

But, the president says a lack of jobs continues to hurt economic growth.

The unemployment rate held at nine point one percent in September. The economy added over one hundred thousand jobs during the month. But economists say that is not enough to markedly bring down jobless rate.

In Hampton, Virginia, First Lady Michelle Obama joined her husband in speaking to armed service members. She spoke about part of his jobs

plan aimed at helping veterans find jobs after they leave the armed forces.

MICHELLE OBAMA: "And this commitment puts us a quarter of the way towards reaching the president's challenge to the private sector to hire or train 100,000 vets and military spouses by the end of 2013."

President Obama has said lawmakers will now have to vote on parts of his jobs plan. And, he said, they will have to explain why they voted the way they did.

2. With Gadhafi Dead, What Does Future Hold for Libya?



Moammar Gadhafi ruled Libya for forty-two years. He was killed Thursday after fighters loyal to the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the NTC, captured him in his hometown of Sirte. People celebrated in Tripoli, including this engineer who gave only his first name, Osama.

OSAMA: "All the people go outside and they celebrate and feel so happy about the end of this Gadhafi's regime and everyone, even the families, the children, the old people, all are out to celebrate this moment. This moment is very happiness moment now."

Questions about how the Libyan leader died have raised the possibility of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Moammar Gadhafi was twenty-seven when he took power in nineteen sixty-nine after a military overthrow of Libya's king. He once declared himself Africa's King of Kings.

This Nigerian social worker, Mary Ene, says other African leaders who want to stay in power forever should learn something.

MARY ENE: "This is a lesson to our leaders in this part of the world to know that power belongs to God and that God can take power from anybody anytime. It is time for our leaders to look beyond trying to grab all the things that belong to the public for their own pockets, for their own families."

Ugandan government spokesman Fred Opolot had some praise for the former leader.

FRED OPOLO: "Gadhafi will be remembered in Uganda as a Pan-Africanist who contributed a lot to the workings of the African Union. Also in individual countries he contributed a lot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let's not forget, he was a key proponent for African unity, so in that

context, Gadhafi will be missed."

The United States blamed Libya for bombing a German nightclub in nineteen eighty-six. Two American servicemen were killed. The United States reacted with deadly air strikes in Libya.



In two thousand three, Colonel Gadhafi took steps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West. He admitted responsibility for the nineteen eighty-eight bombing of Pan Am flight 103 over Lockerbie, Scotland. That attack killed two hundred seventy people. He also reject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errorism. As a result, the United States re-opened diplomatic ties with Libya.

The rebellion in Libya began in February in the eastern city of Benghazi. Colonel Gadhafi sought to crush the unrest. He refused to leave even as NATO planes began attacking his forces in March.

NATO says its air strikes likely aided in his capture. It says its planes had attacked a large group of vehicles that attempted to flee Sirte on Thursday. It says NATO officials did not know at the time that Colonel Gadhafi was in one of the vehicles.

NTC officials have said control of Sirte would begin a series of moves for elections, a new government and a new constitution.

President Obama said the United States looks forward to the quick formation of a government and to free and fair elections.

Mr. Obama added, "Without putting a single U.S. service member on the ground, we achieved our objectives, and our NATO mission will soon come to an end."

3. Fukushima Children Tested for Thyroid Cancer Risk



This week, Japanese doctors began examining three hundred sixty thousand children in Fukushima Prefecture. The goal is to learn the extent to which radiation may increase their risk of thyroid cancer. Children who lived closest to the Fukushima-1 Nuclear Power Station were among the first to be tested.

The earthquake and tsunami that struck northeastern Japan in March left twenty thousand people dead or missing. So far no one has died from radiation exposure. But tens of thousands remain displaced from a twenty-kilometer area around the disabled power plant.

Officials say the thyroid tests will be done every two years until the

children reach the age of twenty. After that, tests will be done every five years. Most cancers of the thyroid gland can be treated if found early. Some people in Tokyo and other cities are measuring radiation levels themselves. They worry about a possible risk from Fukushima. In recent days, a private laboratory confirmed the presence of increased levels of radioactive cesium in some dirt at Tokyo's Edogawa ballpark. The area is nearly two hundred fifty kilometers from the reactors.

A VOA reporter talked to people at a Little League game on Sunday and found that none of them knew about the radioactive hot spot.

Two mothers at the ballpark expressed surprise when told about the soil.

The women say they have heard many general reports about radiation since the disaster in March. They felt they could not be overly concerned about those reports or they would not be able to go on with their daily lives.

Last week private citizens found abnormal levels of radiation in the air on the path to a Tokyo school. However, government officials say the cause was under the floor of a nearby house: old bottles containing radium powder. Radium was used in the past to make watch and clock faces glow in the dark.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ys Japan must avoid becoming too "conservative" in its clean-up efforts.

Japanese officials have ordered an increase in radiation testing, but they say hot spots outside Fukushima are not a cause for worry. They say no

one spends enough time at the sites to get enough radiation to cause harm. They also say the small dosimeters that some private citizens use to measure radiation can give a wrong reading.

<부록 6> 미국의 소리 빈칸 채우기 자료

※참고사항: 미국의 소리 자료 중 실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내용이해도, 내용흥미도 및 빈칸 채우기 채점도가 높았던 3개의 기사만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1. Obama Makes His Case for Jobs Plan



President Obama and his wife Michelle traveled to the states of North Carolina and Virginia this week. The Obamas _____ support for the president's four hundred forty-seven billion dollar jobs plan.

The American Jobs Act calls for _____ wage taxes on most businesses. It seeks to prevent public employees like teachers, police and firefighters from losing their jobs to _____ cutting _____.

And it calls for more _____ on roads and transportation _____ to help create jobs.

Last week, the Senate blocked a vote on the _____. On Sunday, the Majority Leader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aid some parts of the bill are like those in a plan _____ by the Republican Party. Eric Cantor urged President Obama to find _____ with House Republicans.

ERIC CANTOR: "We want the president to work with us. We want him to stop _____. Let's go find the things that are in common between this _____ and his."

Republicans in Congress offered their own plans to improve job growth earlier this year. They have called for cutting tax rates and _____ government rules on businesses.

Last week, Congress passed _____ deals with South Korea, Colombia and Panama. Both Mister Obama and Congressional Republicans agree the deals should create jobs at home and open markets to American _____.

United States trade officials say every billion dollars in new exports _____ six thousand _____ jobs. Last year, exports to South Korea alone stood at about thirty-nine billion dollars. President Obama signs the _____ into law Friday.

But, the president says a _____ of jobs continues to hurt _____ growth.

The _____ held at nine point one percent in September. _____ added over one hundred thousand jobs during the month. But _____ say that is not enough to _____ bring down _____.

In Hampton, Virginia, First Lady Michelle Obama joined her husband in speaking to _____. She spoke about part of his jobs plan aimed at helping _____ find jobs after they leave the armed forces.

MICHELLE OBAMA: "And this _____ puts us a quarter of the way towards reaching the president's challenge to the private sector to hire or train 100,000 vets and military spouses by the end of 2013."

President Obama has said _____ will now have to vote on parts of his jobs plan. And, he said, they will have to explain why they voted the way they did.

2. With Gadhafi Dead, What Does Future Hold for Libya?



Moammar Gadhafi ruled Libya for forty-two years. He was killed Thursday after fighters loyal to the National _____ Council, the NTC, _____ him in his hometown of Sirte. People _____ in Tripoli, including this engineer who gave only his first name, Osama.

OSAMA: "All the people go outside and they celebrate and feel so happy about the end of this Gadhafi's _____ and everyone, even the families, the children, the old people, all are out to celebrate this moment. This moment is very _____ moment now."

Questions about how the Libyan leader died have _____ the possibility of an international _____.



Moammar Gadhafi was twenty-seven when he took power in nineteen sixty-nine after a military overthrow of Libya's king. He once _____ Africa's King of Kings.

This Nigerian social worker, Mary Ene, says other African leaders who want to stay in power forever should learn something.

MARY ENE: "This is a _____ to our _____ in this part of the world to know that power _____ God and that God can take power from anybody anytime. It is time for our leaders to look beyond trying to grab all the things that belong to the public for their own pockets, for their own families."

Ugandan government spokesman Fred Opolot _____ some _____ for the former leader.

FRED OPOLO: "Gadhafi will be _____ in Uganda as a Pan-Africanist who contributed a lot to the workings of the African Union. Also in individual countries he _____ a lot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let's not forget, he was a key _____ for African unity, so in that _____, Gadhafi will be missed."

The United States blamed Libya for bombing a German nightclub in nineteen eighty-six. Two American servicemen were killed. The United States reacted with deadly _____ in Libya.



In two thousand three, Colonel Gadhafi _____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West. He _____ responsibility for the nineteen eighty-eight bombing of Pan Am flight 103 over Lockerbie, Scotland. That attack killed two hundred seventy people. He also _____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_____.

As a result, the United States re-opened _____ with Libya.

The rebellion in Libya began in February in the eastern city of Benghazi. _____ Gadhafi _____ to crush the _____. He refused to leave even as NATO planes began attacking his _____ in March.

NATO says its air strikes likely _____ in his capture. It says its planes had attacked a large group of vehicles that attempted to _____ Sirte on Thursday. It says NATO officials did not know at the time that Colonel Gadhafi was in one of the vehicles.

NTC officials have said control of Sirte would begin a series of moves for elections, a new government and a new _____.

President Obama said the United States looks forward to the quick _____ of a government and to free and _____ elections.

Mr. Obama added, "Without putting a single U.S. service member _____, we achieved our objectives, and our NATO mission will soon come to an end."

3. Fukushima Children Tested for Thyroid Cancer Risk



This week, Japanese doctors began _____ three hundred sixty thousand children in Fukushima _____. The goal is to learn the _____ which _____ may _____ their risk of _____. Children who lived closest to the Fukushima-1 Nuclear Power _____ were _____ the first to _____.

The earthquake and _____ that _____ northeastern Japan in March left twenty thousand people _____ or missing. _____ no one has died from radiation _____. But tens of thousands _____ from a twenty-kilometer area around the disabled power _____.

Officials say the _____ will _____ every two years _____ the children _____ the age of twenty. After that, _____ will be done every five years. Most cancers of the _____ can be treated if found early.

Some people in Tokyo and other cities are _____ radiation levels themselves. They worry about _____ from Fukushima.

In _____ days, _____ confirmed the _____ of increased levels of _____ cesium in some dirt at Tokyo's Edogawa ballpark. The area is nearly two hundred fifty kilometers from the reactors.

A VOA reporter talked to people at a Little League game on Sunday and found that none of them knew about the radioactive hot spot.

Two mothers at the ballpark _____ when _____ about the soil.

The women say they have heard many _____ reports about radiation _____ the disaster in March. They _____ they could not be _____ concerned about those reports or they _____ be able to go on with their _____.

Last week private citizens found _____ levels of radiation in the air on the path to a Tokyo school. However, government officials say the cause was under the floor of a _____ house: old bottles

containing _____ powder. _____ was used in the past to make watch and clock _____ in the dark.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ys Japan must _____ too " _____ " in its clean-up _____.

Japanese officials _____ an increase in radiation testing, but they say hot spots outside Fukushima are not a cause for _____. They say no one spends _____ time at the sites to get enough radiation to _____ harm. They also say the small _____ that some private citizens use to measure radiation can give a wrong reading.